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5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23일(음력 8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가능해졌다

9월 16일 태고종 157차 임시종회
지난해 부결 안건…15년 만 변화
격론 끝 표결…찬성 42표로 가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임기가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변경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는 9월 16일 열린 제157차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임기 연임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의 변화다.

연임제 개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올해 재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과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던 사안이어서 향후 종단 운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날 임시회는 60명 중 5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첫 번째 안건인 종헌·종법 일부개정(안) 중 '총무원장 임기 규정 개정(안)'은 투표에서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제안한 '총무원장 임기규정 개정(안)'은 현행 4년 단임제를 1회 재선거에 의한 연임제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회와 중앙종회의 장단 협의로 부칙 중 '이 법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라는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륜 스님은 "종책사업의 연속성과 대외·대관 업무 협조의 지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임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대혜 스님은 "4년 단임으로는 종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에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며 종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연임에 따른 장기 집권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연임 여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종회의 판단을 거쳐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청공 스님은 종도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안건을 보류하거나 보완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원일 스님은 "연임제 논의는 2년 전부터 추진돼 왔고 그동안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라며 최근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호 스님도 "8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헌 개정이 논의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이 현 총무원장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토론 과정에서 특정 사찰 및 개인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마무리됐다.

찬반 의견을 나눈 중앙종회는 격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안건인 '종무원장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선거관리위원장 상설화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에 자관·지우 스님, 호법위원에 도허 스님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헌과 종법 개정은 종단의 미래와 제도의 안정성, 종도 전체의 뜻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든 일에는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단 각 기관과 전국 종도들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총무원이 추진하는 종책과 주요 사업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1만 동국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17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6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 을 개최했다. 이날 동국대는 1만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수계를 받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진은 참가 내빈들과 참가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신중일 기자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0인 확정…초선 5명 '변화' 주목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9월 14일
제40차 운영위원회서 10인 선출
진상 · 은광 · 금해 · 주석 · 정관 · 혜능
법해 · 설해 · 수경 · 서원 스님 당선
10월 12일 직능대표선출위서 확정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후보 10명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초선 후보 5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종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경험을 갖춘 현역 의원과 새로운 시선을 가진 초선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향후 비구니 승가의 현안과 참종권 확대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9월 14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5개 분야에 출마한 16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최종 10명을 선출했다.

교학·수행분야에는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분야에는 금해 스님과 주석 스님, 복지분야에는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분야에는 법해 스님과 설해 스님, 사회·문화분야에는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10명의 후보자는 10월 12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4일 서울 법룡사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10인의 추천후보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선거인단 96명 중 9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선출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입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16명 입후보자의 정견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5개 분야별 2명씩 선출했다.

선거 결과 교학·수행 분야에는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이 각각 66표, 68표를 얻어 선출됐다. 철우 스님은 50표를 얻었다. 포교분야에는 금해 스님과 주석 스님이 각각 57표, 81표를 얻었다. 정운 스님은 46표에 그쳤다. 복지분야에서는 정관 스님이 66표, 혜능 스님이 68표를 확보해 선출됐다. 지인 스님은 49표에 머물렀다. 행정분야에서는 법해 스님 79표, 설해 스님이 46표를 얻었다. 우하 스님은 25표, 보경 스님은 34표에 그쳤다. 사회·문화분야에는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선출됐다. 각각 79표와 61표를 얻었다. 지인 스님은 44표를 얻었다.

이번 선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0명의 추천후보 가운데 초선 의원이 5명이라는 점이다.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자리를 지킨 가운데 새로운 얼굴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경험과 새로운 시선이 함께 중앙종회에 들어서게 됐다. 수행과 포교를 비롯해 복지·사회문화 등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종회에 전달하는 것도 새로운 의원들의 과제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와 종단 내 역할 강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선출위원장인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 당락에 상관없이 결과에 승복하고 맡은 바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아픔을 보듬으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추석 연휴로 9월 30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38 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공의 公議
공감 共感
공심 公心

■ 불기2570(2026)년 10월 1일(목) 오후 2시
■ 조계사 특설무대 ■ 참석문의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6

“세대 갈등, 연기적 사고로 ‘회통’ 길 찾아야”

이은영 교수, 화쟁적 불교철학상담 제시

‘갈등 해소 해법’ 학술세미나서
성찰 · 자비명상 · 실천으로 구성
“상실감의 적의 전환 회로 끊어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특정 세대의 관점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세대의 관점을 배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연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회통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적대와 증오를 완화하는 인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자비와 사무량심이 더해지면 서로 연대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이은영 경상국립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연구교수〈사진〉가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방법론으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9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이 개최한 ‘한국사회의 세대 갈등과 화쟁적 해법’ 학술세미나에서 ‘세대 통합을 위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상실감과 인정의 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대 갈등을 가치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를 고정된 실체로 구분하는 인식과 그 구분에서 비롯되는 정서의 문제로 바라보고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이 같은 인지와 정서의 문제를 ‘삼독심’으로 연결했다. 세대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과 자신의 세대만이 옳다는 고집은 ‘무지’, 자기 세대의 이익에 대한 집착은 ‘탐욕’, 다른 세대에 대한 적대와 혐오는 ‘증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 갈등의 정서적 뿌리로는 상실감과 인정의 결핍을 꼽았다. 이 교수는 “청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중장년은 현재의 자리를, 노년은 과거에 있었던 쓸모와 존중을 잃었다는 ‘상실’을 겪는다”며 “상실은 인정의 결핍에서 오는데 이는 세대를 서로 배타적인 실체로 보는 것, 곧 삼독 가운데 치(癡)”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세대의 몫에 대한 집착과 다른 세대를 향한 적의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이기에 감정만 다스려서는 완화될 뿐 근절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서사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견해나 주장이 저마다 처한 맥락 속에서 부분적 타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대립을 일심의 지평에서 회통시키는 ‘화쟁’의 논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 교수가 제시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성찰적 분석, 자비명상, 삶 속 실천의 3단계로 구성된다.

성찰적 분석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세대와 상대 세대의 서사를 연기적 관점에서 다시 읽도록 돕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기각하거나 절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견해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비명상에서는 사무량심을 닦는다. 먼저 인정 결핍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를 상대 세대로 확장한다. 성찰을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랑과 연민, 연대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삶 속 실천에서는 통찰을 일상의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한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명료화하고, 그 통찰을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탐색한 뒤 실천을 점검하며 다시 마음을 닦는 순환적 과정이다.

이 교수는 “화쟁은 대화를 이끄는 논리를, 불교철학은 그 논리가 딛고 선 존재론 곧 무아와 연기와 가명의 이해를, 철학상담은 그것이 이뤄지는 형식을 제공한다”며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각 세대가 겪는 실제의 상실감이 다른 세대를 향한 적의로 전환하는 회로를 끊음으로써 세대 통합을 위한 제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사무국장 정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원효 대사의 화쟁은 저마다 지닌 타당함을 드러내 일심으로 회통하는 길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 곧 화쟁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잇따라 불교계 예방

김민석, 9월 15일 진우 스님 찾아
템플스테이 돌봄 활용 방안 제안
진우 스님, 장동혁에 “자비 정치”
상진 스님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불교계를 찾아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이를 돌보는 가족들은 본인들을 위한 케어나 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약자의 휴일’이라는 취지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쉬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곳이 자연과 함께한 템플스테이다. 각 사찰이 전국에 있으니 더 효과적일 것 같다”며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하루 돌봄은 자원봉사자들이 케어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김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검토를 당부했고, 김 대표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 대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예방해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진 스님은 현재 태고종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며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이라면 종단에서도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상진 스님과 태고종이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펼쳐온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사회적 고립과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9월 16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국민의 삶과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로 생각과 방향성이 달라 어렵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진영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들을 위해 다시 자비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 김내영 · 박지운 기자

진우 스님 “국가 안보만큼 마음 안보 중요”

9월 17일, 강건작 신임 청불회장에
“마음 튼튼해야 사회 통합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올해 7월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선출된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 안보나 국방만큼이나 마음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함께 국민 마음 안보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외부적 영향으로 마음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 안보가 튼튼하면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혜가 나올 수 있다”며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된다. 여유를 갖고 상대를 배려해야 오히려 자기 뜻도 관철될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니 서로 갈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마음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실천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 안보가 튼튼할 때 사회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건작 회장은 “큰일이 가끔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스님 말씀을 새겨 마음 안보를 잘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이영수 청와대불자회 사무총장(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내영 기자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선출

9월 15일,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경우 스님 92 · 태효 스님 14표
“더 낮은 자세로 교구발전 매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이 선출됐다.

제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완 스님)는 9월 15일 성보박물관에서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30명 중 107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경우 스님이 92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태효 스님은 14표를 얻는데 그쳤다. 무효표는 1표로 집계됐다.

이번 산중총회는 2015년부터 11년 동안 선운사 주지를 맡아온 경우 스님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8월 6일 교구장직을 사직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당초 기호 1번 태효 스님·기호 2번 종고 스님·기호 3번 경우 스님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산중총회를 하루 앞둔 9월 14일 기호 2번 종고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태효 스님과 경우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경우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 “한여름 밤의 꿈처럼 긴 꿈을 꾼 것 같다. 다시 교구장으로 나선 것은 개인적으로 몹시 어려운 선택이었다” 며 “여러 스님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는데, 교구 선후배 스님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고민도 깊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선운사 주지 소임을 보는 11년여 동안 늘 어제보다 나은 선운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구를 위해 뛰었고, 선운사와 대중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왔다”며 “다시 한 번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면서 교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된 경우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선운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만 동국인 동시 수계…청년 전법 새 장 열다

동국대 건학위 9월 17일 '영캠프'
'청년 전법 축제'로 완벽 자리매김
신청 1분 만에 매진…인기 '실감'

전계대화상 진우 스님, 오계 설해
152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수여도
청년 문화 페스티벌로 대미 장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17일 열린 동국대 영캠프에서 전계대화상으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학생들에게 오계를 설하고 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1만여 동국인들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1만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수계받음으로써 동국대는 청년 전법의 새 장을 열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9월 17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6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2024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함께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힙한 불교의 열기를 잇고, '청년불자 씨앗'을 심는 청년세대 전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받아 마련됐다.

영캠프는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옮겨 진행됐다. 이는 더 많은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역시 대규모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실제 9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2026 영캠프' 참가 신청은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지난해 참가 신청이 2분 만에 마감된 데 이어, 올해는 마감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 2시간 전부터 대운동장에 학생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1시간 전에 이미 행사장은 만석이 됐다.

이날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는 1만여 재학생들이 참여한 수계법회였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은 영캠프에 처음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았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교육아사리,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이 갈마아사리로 참여했다. 3사7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비롯한 법인 이사 원명·종호·진화·성행·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장 각진 스님, 법인 감사 법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참여했다.

수계식에서는 동국대 한국음악과 오케스트라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학인 스님 등 150여 명이 '우리말 예불문(오분향·칠정례)'·삼귀의례·반야심경 봉독 등을 진행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법상에 오른 전계대화상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을 얻는 것"이라며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수계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수계 대중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덕을 지어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는 오계를 설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150여 스님들의 연비의식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스님들은 1만여 학생들에게 연비 대신에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연비사 스님이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연비는 단주를 채워주는 것으로 대체했다.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 글로불동 회원들이 합장하고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연비를 마친 대중에게는 계첩이 수여됐다. 계첩은 학생들을 대표해 이승준 영캠프학생기획위원회 단장과 문수연 부단장이 수여받았다.

계를 수지한 대중들은 발원문을 봉독하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수계대중은 "이제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가겠다"고 서원했다.

기금 전달식에서는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오준세 경희알미늄 대표와 금강성 보살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이어진 '제152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김현기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 회장(체육교육 2학년)과 양은정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회장(경영정보 3학년)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표로 장학금을 받은 김현기 회장은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불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정진하는 청년 불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은정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다잡을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마음이 흔들려서 집중이 안 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이 수계식을 통해서 불교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불자가 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영캠프 대미는 청년 불자들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 장식했다. 행사에서는 부제인 '번뇌를 씻어내다'의 의미를 담아 워터캐논을 설치·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축하공연으로는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국민 아이돌로 급부상한 리센느를 비롯해 랩퍼이자 프로듀서인 지코, 다국적 보이그룹 NCT드림이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불교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지속'

9월 15일, 긴급구호단 활동 브리핑
중신회 등 피해 복구 기금 전달도

네팔 대홍수 현장을 찾은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겨울철 방한용품 지원 등 추가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활동 내용과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브리핑에는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과 김정호 총무원 사회부 차장, 박성주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 한은영 아름다운동행 주임, 김현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선일 스님은 현지 상황에 대해 "토사물이 내려와 주민들의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돼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유실된 도로가 많아 산악지대로 이동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 2명과 사위를 잃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장을 마주하게 됐다"며 "물품 지원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정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호단은 네팔 불교계에서도 이재민 지원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비롯한 이재민들은 카트만두 내 사원 2곳에 머물며 보호받고 있다.

구호단은 향후 모금 상황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규모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산악지대의 추운 기후 특성을 고려해 담요 등 방한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지역의 주거지를 강 상류로 이전하고, 강 하류에 위치한 학교·관공서 등 주요 인프라 재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구호단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과 베트라와티 마을을 찾아 1차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9월 5일 먼저 출발한 선발대가 현지 NGO와 함께 피해 현황과 구호 수요를 조사한 뒤 9월 8일 출국한 본대와 합류해 물품을 전달했다. 9월 10일에는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 850가구에 쌀, 렌틸콩, 식용유, 과자 등 20일분의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대홍수 잔해 정리에 필요한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 복구 물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9월 17일,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 스님)는 9월 16일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각각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 해광사(주지 태공 스님)도 9월 15일 피해 지원에 동참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0만원을 구호 기금으로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네팔은 부처님의 고향인데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불자들의 정성이 피해 복구와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10월 31일까지 네팔 대홍수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농협은행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팔 대홍수 현장 1차 활동 내용과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3000여 포교사, 팔관재계로 전법원력 새기다

9월 12~13일 장성 백양사서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제31회 포교사 품수식 봉행
포교사 364명 품수…철야정진
진우 스님 "포교사 위상 제고"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9월 12~13일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및 제31회 신규 포교사 품수식, 제19 · 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을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했다.

전국의 포교사 3000여 명이 장성 백양사에 모여 팔관재계를 수지하고 전법과 수행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주관한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및 제31회 신규 포교사 품수식, 제19·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무박2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봉행됐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백양사 소임자 스님, 강의수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각 지역단장과 전국 포교사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팔관재계는 재가불자가 하루 낮과 밤 동안 출가수행자의 위의를 따라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며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다. 포교사단은 팔관재계를 통해 지계와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전법 현장에서 실천할 보살행의 원력을 다져왔다.

12일 오후 백양사 성보박물관 주변 특설무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직접 법석에 올라 포교사들의 전법활동을 격려하고 종단 차원에서 포교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포교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출가자와 신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포교사들이 스님과 재가불자를 잇고 지역의 포교현장을 지탱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팔관재계의 수행적 의미를 계·정·혜 삼학과 탐·진·치 삼독의 극복에서 찾았다. 진우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일으키는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만나고 팔관재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며 "계를 받는 것을 힘들게 여기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포교사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무 스님은 개회사에서 "계율은 함께 사는 지혜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라며 "전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지계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자비의 보살행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더욱 큰 신뢰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교사들은 이어 팔관재계 수계식에서 참회와 연비, 귀의, 선계상 등을 거쳐 계를 수지했다. 전계사로 법좌에 오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법문했으며, 포교사단장이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수계법회 이후에도 수행정진은 밤새 이어졌다. 정무 스님의 '계율·간경·염불·참선·보살행'을 주제로 한 불교 5대 수행법 연수특강에 이어 포교사의 다짐과 백양사 소개가 진행됐다. 자정부터는 백양사 일원을 왕복 7km 걷는 선명상에 나섰으며, 새벽까지 금강경 독송과 철야정진, 새벽예불을 이어갔다.

13일 새벽 포교사들은 사홍서원과 함께 밤샘 정진을 회향했다.

기자칼럼

초선 5명, 비구니 종회 변화의 신호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에서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4일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학·수행, 포교, 복지, 행정, 사회·문화 등 5개 분야에서 10명을 선출했다.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과 초선의 조합이다. 현역 의원 5명이 다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새로운 얼굴 5명이 중앙종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절반이 초선이라는 사실은 세대교체 의미를 넘어선다. 종단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의정활동의 우선순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의 경험이 있다. 중앙종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종법 개정과 예산 심의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비구니 승가의 현안을 종단의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이다.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새로운 시선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행·포교·복지의 변화, 젊은 세대와의 접점, 사회·문화 영역에서 불교가 마주한 과제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특히 비구니 승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종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역과 초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종단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함께 살피며 풀어가야 할 제도적 과제다. 비구니회가 선출 과정에서 참종권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과제의 연장선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앙종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현장의 요구를 어떤 의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특히 초선 5명에게는 '영파워'에 대한 기대가 따른다. 젊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이유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선은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명의 초선 후보가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5명의 현역이 경험과 연속성을 뒷받침한다면 이번 구성은 세대교체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선출에서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이 비구니 참종권 확대의 다음 장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부장

2026 명상 콘퍼런스…AI시대 명상 역할 모색

동국대 종학연구소 17일 개막식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일환
국내외 석학 8명 '명상' 주제발표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9월 1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개막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선명상이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개막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국내외의 다채로운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며 명상의 참된 가치를 깊이 성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불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이어온 동국대는 엑스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나아가 한국의 명상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18일까지 이어진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명상 전문가 8명이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의 위치와 역할,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콘퍼런스는 수불 스님의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양자물리학 석학인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을, 세계적인 율학 전문가인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AI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다섯 차례 발표가 이어졌다.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은 '불교과 해오(解悟)주의'를, 방글라데시 가야나사라나 불교산림사원 주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인 사라낭까르 스님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면의 평화 구축-명상과 자비의 역할'을 발표했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툽텐 텐다르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 명상이 나아갈 길을 묻다-전통 불교 명상과 현대 마음챙김의 대화'를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담마 웰니스-불확실성 시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제로 불교와 웰니스의 접점을 다뤘다. 신중일 기자

〈명상 콘퍼런스 차주 상보〉

"사찰림, 산림복지 거점으로"

9월 16일,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포럼



사찰림을 산림복지 자원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휴양과 치유, 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9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찰림 기반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사진〉은 사찰림의 산림복지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산림복지는 산림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유·교육·휴양·문화·레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하 과장은 "생명다양성 등 자연 가치의 원형이 보전돼 있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사람과 만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숲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산림복지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사찰이 갖추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찰림의 장점으로 꼽은 하 과장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활용 모델로는 '사찰림 산림치유 템플스테이' '생명존중 산림교육' '무장애 숲길' 등이 제시됐다.

사찰림 산림치유 템플스테이는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숲속 행선·음향 치유·요가 등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생명존중 산림교육은 숲의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벌레 밟지 않기, 고목과 다층 식생 관찰하기 등의 활동으로 생태적 가치를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무장애 숲길은 이동 약자도 숲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 친환경 데크길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과제로 △명상, 다도 등 산림치유 융합 △민·관·종단 간 거버넌스 구축 △사회서비스 연계 △전문인력 양성 △ESG 및 지역 상생 경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사찰림을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하 과장은 "영국과 캐나다에는 의사가 약물 처방 대신 지역사회 숲이나 사찰 등 비의료 자원을 연계해 마음을 치유하는 제도가 있다"며 "산림치유 의료보험화를 장기 과제로 두고, 복지 예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희 기자

아프리카 출신 첫 사미 탄생

9월 13일, 사미·사미니 교육 회향
33명 이수·5급 승가고시 통과
보리가람 덕효 스님 사미계 수지



행자에서 수행자의 길에 첫발을 내디딘 예비 스님들이 14일간의 수계교육을 마치고 승가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미가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부(부장 유정 스님)는 9월 13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7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 14일간 계율, 불교 교학, 수행 등을 익히며 출가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진 33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5급 승가고시를 거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회향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회향사에서 계·정·혜 삼학을 고르게 닦아 불법의 정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수계교육에서 탄자니아 출신 덕효 스님이 주목을 받았다. 덕효 스님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생이다. 학교 법당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스님은 한국 스님들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출가를 발원했으며 이후 한국어와 불교를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준비해 왔다.

덕효 스님은 "교육은 힘들었지만 사람들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명상과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촉구

9월 9일, 601개 시민단체 회견
환경연대 등 불교단체 성명서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가운데 불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교·노동·인권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강요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릴레이 1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소속 원경 스님이 참석했다.〈사진〉

원경 스님은 "트럼프 압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호르무즈로 내보낼 수는 없다"며 "트럼프는 즉각 파병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21개의 불교 단체들도 9월 15일 '살생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국군·군사 자산 파견 검토 중단 △미국의 파병·군사적 기여 요청 내용과 정부 검토 과정 공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평화 노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검증 없이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동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현희 기자

'밀교의례 실행과 전개' 학술대회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9월 29일
밀교의례 공법·만다라 등 발표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이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진각종 총인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밀교의례의 실행과 전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밀교의례 공법에 대하여(혜안화 전수, 위덕대) △밀교의례 만다라 작법에 대하여(방정란, 경상국립대) △밀교의례 관정에 대하여(성제 정사, 위덕대) △밀교의례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연구 △불복장의 만다라 정토(강다현, 위덕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그대는 자비보살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끊어진 일상, 마음 돌봄으로 잇습니다"

재난 약자·돌봄 제공자 정서 지원
아동공간·노인쉼터 등 맞춤 복지
피해자가 봉사자로 '회복 선순환'
마음의 문 열 수 있는 관계망 중요
한 사람 아픔 외면 않는 '자비' 정신
"서로 안전망 돼주는 울타리 역할"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매일 가꾸던 텃밭을 더는 가꿀 수 없고, 매일 만나던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당연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잃는 것이 재난이다. 재난이 지나간 뒤 상실과 우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사회와 단절된 이들도 적지 않다.

재난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물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가 필요한 이유다.

이지스는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 산하 단체로 2015년 결성됐다. 오유현 단장을 비롯해 강성원·박응식·이윤호·박재윤·신정식·김진수·유가영·박진호·임예신 활동가 총 10명이 재난심리·정신건강·표현예술 등의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스가 만들어진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재난 직후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시 국내 시스템은 해외에 비해 미비했다. 물품 지원은 이뤄졌지만 재난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지원은 부족했고, 심리 전문가들이 재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구호 활동을 펼치던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를 마주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해 지금의 이지스를 만들었다. 이후 이지스는 국내외 재난 현장을 찾아 재난 약자와 이재민의 마음을 돌보고 있다.

오유현 단장은 "긴급구호 활동가들은 마음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심리 전문가는 아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고, 반대로 저희는 관련 전문성을 갖췄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이 있었다"고 이지스의 출발점을 설명했다.

이지스는 현장의 필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시도해 왔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아동친화공간'을, 2022년 동해안 산불 때는 '노인돌봄쉼터'를, 2025년 경북 산불 당시에는 '반려동물 대피소'를 국내 재난 현장에 처음 도입했다. 기존 재난 구호 체계에서 놓치기 쉬운 이들의 필요를 살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2022년 중부권 수해와 이태원 참사, 2023년 강릉 산불과 경북 예천 수해, 2024년 대전 정뱅이마을 수해, 2025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내 재난 현장을 찾았다. 2018년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와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현장에서도 활동했다.

이지스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다.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크기는 제각각이다. '재난 피해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정보 접근과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아동 등은 재난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이지스가 무안공항에서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참사 직후 현장을 찾은 이지스는 유가족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고 수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공항 한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지스는 먼저 가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바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혼잡한 공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살피고 말을 건네는 것에서 돌봄은 시작됐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그림을 그렸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거웠던 공항에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졌다.



2015년 결성된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는 국내외 재난 현장 곳곳에서 재난 약자와 이재민들을 위한 정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오유현 단장(아랫줄 가운데)과 신정식·김진수·유가영·박재윤·이윤호 활동가(시계 방향).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마련된 아동친화공간에서 이뤄진 돌봄 활동.



2024년 수해가 발생한 대전 정뱅이마을에서 진행한 공동체 회복 활동 모습.



2025년 팔레스타인 NGO 사와(SAWA)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 모습.

이지스는 이 경험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본 순간으로 꼽았다. 재난을 겪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씩 꺼내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박재윤 활동가는 "신체든 마음이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지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의 정서 지원은 재난 피해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는 사람 역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

2024년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서는 팔레스타인 NGO 사와(SAWA) 전화상담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33명의 상담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일씩 참여했다.

극한의 분쟁 환경에서 상담원들이 매일 들었던 것은 구조 요청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와 죽음을 각오한 목소리였다. 누군가의 고통을 반복해서 듣는 상담원들은 2차 외상과 번아웃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지스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담원들은 호흡을 통해 온몸에 쌓인 긴장과 아픈 감각을 느꼈다. "내 몸이 보내던 신호를 듣지 못했다" "남을 구하느라 내 마음에는 자리가 없었는데 내가 나에게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무엇이 힘든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자신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지스는 재난 약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전체 지원 체계의 회복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 힘든 이야기만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을 돌보는 힘 자체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돌봄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도 이끌었다. 2024년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제방이 터지면서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지스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아 약 6개월간 재난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도 직접 기록자로 참여했다.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 복원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해 청송 지역 산불이 발생하자 정뱅이마을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지스와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재난 피해자로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른 피해자를 돕는 봉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셈이다.

이지스는 이러한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할 때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윤 활동가는 "치유와 회복은 상대가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회복의 힘을 찾고 다시 주체로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뤄진다"며 "재난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활동가로서 위치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복의 힘을 본다"고 말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이지스의 활동은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구분하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재난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호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재난이 수습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아픔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 곁에 다른 한 사람이 머물러 주는 것, 그 연결이 또 다른 연결로 이어져 서로의 안전망이 돼주는 것. 그렇게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단 운영체제 정비하고 불교 기반 넓혀

제37대 집행부 성과 | 종단 안정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지난 4년간 종단 운영의 안정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선명상을 새로운 수행문화로 확산하고,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며 '힙불교' 흐름을 이끌었다.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나눔과 연대의 영역도 넓혔다. 37대 집행부가 추진한 주요 종책과 활동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는 종단 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수행자 복지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30년 만의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비롯해 종단 직영 요양병원 개원, 문화유산관람료 제도 개선, 국가무형유산 지정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시도도 이어졌다. 종단 내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온 시간으로 평가된다.

30년 만의 조직개편…미래전략 기능 강화

제37대 집행부는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유지돼온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삼원으로 분산된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과 포교를 비롯한 종무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조직개편과 함께 종단의 연구와 미래전략, 대사회 소통 기능도 별도 조직으로 강화했다. 조계종연구소와 미래본부,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해 종단 현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종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미래전략과 불교계 안팎의 소통·홍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출범한 조계종연구소는 분산돼 있던 연구 기능을 통합한 종단 싱크탱크다. 사부대중이 가진 아이디어를 종단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종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포살을 통한 지계 중심의 신행 회복을 제안한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디어홍보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넓혔다.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불교조계종'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중과 눈높이에서 소통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6만7000여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 명을 앞두고 있다.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을 전담한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주도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대중화, 미래시대 성장과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불교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행자 복지, 제도적 지원 넘어 돌봄으로

수행자 복지는 제도적 지원을 넘어 실제 돌봄의 기반으로 확장됐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경기 안성에 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최초의 종단 직영 요양병원으로,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의 부담을 덜고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감염병실과 치매병실 등을 갖추고 스님과 재가 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운영하며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특히 입원 스님들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다. 현재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추며 승려복지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와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스님을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4년 10월에는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초고령 승가에 대한 종단적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출가에서 노후와 병고에 이르기까지 수행자의 삶을 완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구축·보완해온 것이다.



조계종은 2025년 4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삼원 통합 고불식'을 봉행했다.

삼원통합으로 종무행정 효율 강화
200여 병상 갖춘 요양병원도 운영
사찰음식 등 국가유산 지정 이끌어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뒷받침한 제도 개선

불교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사찰 관련 제도 개선도 주요 성과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해인사·불국사 등 전국 64개 주요 사찰의 문화유산관람료를 전면 감면했다. 관람료 감면으로 국민의 관람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온 사찰의 역할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사찰 전기료 지원도 사찰이 수행과 신행, 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담당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사례다. 다만 현재 지원 대상이 국가유산 보유 사찰로 한정돼 전통사찰 전체의 전기요금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통해 사찰 소유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의 지목 용도 조정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으로 전승 기반 확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조계종은 2025년 3월 6일 경기도 양평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개관했다. 종단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전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양평군의 협력으로 조성됐다. 양평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용문산 아래인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에 위치한 보존센터는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형불화 조사와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불교문화유산의 특성에 맞춘 조사·연구와 보존처리가 가능해졌다.

사찰음식은 2025년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면서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7월 15일에는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아 사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 의례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이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괴로움 벗어나는 길 선명상으로 열다

제37대 집행부 성과 | 선명상 대중화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는 현대사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국민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명상 대중화'를 주요 종책으로 추진했다. 불교 전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도를 양성하는 한편, 국제선명상대회와 국내외 교류, 지역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마음 안보' 수행법으로 확산해 왔다.

국민 마음 평안 위해 '선명상' 추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선명상의 대중화를 강조해 왔다. 스님은 "불교에서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면서 "괴로움의 인과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선명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명상을 현대인의 마음 수행법으로 제시했다.

총무원에 미래본부를 설치하고 국내외 불교계와 비종교 분야 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조사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불교 수행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이 쉽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였다.

2023년에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중심으로 선명상 대중화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천년을 세우다'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선명상 대중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불사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 신도, 포교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선명상 확산을 위한 기금도 모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명상을 종단 차원의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하루 5분 선명상' 일상 실천 제안

취임 2년 차를 맞은 2024년에는 선명상 대중화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격화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짧은 시간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영상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이 처음 공개됐고, 선명상 안내서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마련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사회 각계 리더를 대상으로 선명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특히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을 국민적 관심사로 확장한 자리였다. 당시 진우 스님은 직접 단상에 올라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이날 3만5000여 명이 5분간 선명상을 체험하며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0월 1일 폐막식에서는 전국 선명상센터 운영, 유엔 차원의 세계 명상의 날 지정 등을 제안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열고 K-선명상과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120여 명의 방미단이 참여한 교류 행사에서는 선명상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수행법으로 소개하며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을 모색했다.

프로그램 확대하고 지도자 양성

2025년에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국적 확산이 진행됐다. 스님과 재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선명상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했다. 그 결과 선명상 프로그램은 5분 실천형부터 1시간 과정, 1박 2일·2박 3일 체험형, 4주 과정 등으로 다양화됐다.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도법사와 지도사 양성에도 나섰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전국 사찰과 지역으로 확산됐다. 4월 1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한 대회는 전국 지역 선명상대회를 거쳐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와 폐막식까지 7개월간 이어졌다. 컨퍼런스에서는 선명상과 교육의 접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명상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회 기간 총 35만 명이 참여했다.



조계종이 지난 4월 개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하루 5분 선명상' 제안
선명상위원회 출범으로 보급 체계화
선명상·공교육 접목 위한 정책 검토

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세계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출범해 세계 명상 네트워크와의 연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불국사 배우자 행사에서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명상을 소개했다. 선명상이 한국불교를 알리는 문화교류의 수단이자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실천법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됐다.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 · 국제대회 개최

2026년에는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를 설치, 종단 차원의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선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연구·학술 지원, 국내외 단체·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정했다.

선명상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도 이어졌다. 4월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 기간 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고 8500여 명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요가와 사경, 선태극권, 공 사운드 배스, 펫로스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선명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공주·세종·대구·울산·영덕·부산·영암·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에서도 선명상대회가 열려 지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 · 영덕에 '치유센터' 거점 마련

도심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다. 7월 6일부터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는 선명상 치유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월 프로그램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7월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여했다.

7월 22일에는 영덕 장육사 인근에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를 개원했다. 선명상을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전통문화, 웰니스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접목 등 '국민운동' 확산

교육 현장에서도 선명상 기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의 마음건강, 교육공동체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장)이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와 서울교육위원회 마음건강 분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교육에 선명상을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시작됐다. 김내영 기자

청년문화·대학 전법 지원…'관심'을 '신행'으로

제37대 집행부 성과 | 청년 전법 · 힙불교 진흥

'문화' 매개로 청년세대와 소통
불교박람회 인기…25만 명 기록
'청년밥심' 등 돌봄 사업 지속
전법 환경 · 예산 확보 등 과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우 스님이 이끈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불교문화 콘텐츠와 동아리 지원, 생활 돌봄을 중심으로 청년 전법 사업을 추진했다. 뉴진 스님 활동 지원과 선명상 포교그룹 비텐스, 불교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과 만나는 기회 역시 넓혔다.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임기 첫날 청년 불자들을 만난 데 이어 문화행사와 차담 등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했다. 2024년 본지 인터뷰에서는 "청년세대와 소통할 언어를 고심했고, 그 언어가 지금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화포교에는 음악과 공연을 활용했다.

2024년 8월에는 비구·비구니 스님 10명으로 구성된 '비텐스'를 선보였다. 노래와 악기 연주 등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선명상을 알리는 프로젝트다.

뉴미디어 활용도 확대했다. 조계종은 삼원통합을 진행하며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법문과 사찰탐방, 불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AI를 활용한 찬불가와 뉴스쇼츠 등도 제작했다.

조계종이 주최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문화 체험의 장으로 운영됐다. 2025년에는 인근 봉은사의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했고, 올해는 공(空)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체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 관람객은 2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20·30대 비중은 72%로 2025년에도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37.2%, 36.2%로 합계 73.4%였다.

대학생 전법에서는 사찰과의 연계 및 체험 지원이 추진됐다. 진우 스님은 2025년 2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부를 만나 지역 사찰 연계와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대불련에 가입하게 하려면 전법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역사찰과의 연계, 종단적 차원의 지원으로 대불련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돕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불교박람회 인기를 견인하며 미래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높였다. 사진은 지난해 4월 3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 직후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은 진우 스님.

청년들의 사찰 체험과 교류도 지원했다. 진우 스님은 2024년 5월 봉축기자간담회에서 청년 단기출가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히며 청년세대가 갖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들의 생활을 살피는 현장 활동도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올해 5월 19일 서울 연화사의 '청년밥심'에 참여해 배식하고 대학생들과 진로 고민을 나눴으며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적극적 소통을 기반한 포교 종책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서울 봉은사는 박람회를 계기로 찾아온 청년들을 기초학당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과정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사찰음식, 108배, 봉사, 템플스테이 등을 보강했다. 기초학당의 30대 교육생은 75기 22명에서 76기 48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통의 가치를 청년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콘텐츠의 유연함' △체험을 수행으로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현장을 지탱하는 '실질적 인프라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는 것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관심을 신행으로' 기획 인터뷰에서 "공연과 전시, 음악, 문화콘텐츠는 불교와 친해지는 좋은 출발점"이라며 "문화적 경험이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고, 스님과 도반을 만나 수행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신행이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호감을 신행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국내외 재난 구호 견인

제37대 집행부 성과 | 대사회 활동

사회적 약자 초청 · 정부에 요구 전달
차별금지법 지지 · 산재 희생자 추모
국내 재난 복구 · 해외 긴급구호 전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참사 희생자 추모, 국내외 재난 구호를 중심으로 대사회 사업을 전개했다.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은 법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25년 6월 22일 봉은사에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돌봄·청소 노동자, 참사 유가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당사자와 활동가 40명이 초청됐다. 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사회 각계 지도층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봉은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치료·긴급구제기금 500만원도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입장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불교계의 제정 촉구 활동을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17일에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손솔 국회의원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조계종은 2025년 11월 18일 조계사에서 국내·이주노동자 140여 명의 위패를 모신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 앞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진우 스님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과 이주정책 전환 요구 등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당부했다.

2026년 새해 첫날에는 봉은사에서 참사 유가족과 노동자, 인권·빈곤 문제 활동가 등과 108배를 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4월 24일에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주거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왔다. 사진은 올해 4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한 진우 스님이 윤용주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참사 피해자 추모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추모위령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재난안전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했으며 이듬해 10월에는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자연재난 현장에서는 복구와 이재민 생활을 지원했다. 2023년 7월 25일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찾은 진우 스님은 경북도와 예천군에 성금 각 1억원, 예천군에 3000만원 상당 식료품·생필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과 교구본사 등이 기금 마련에 참여했다.

2025년 경북 산불 당시에는 이재민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진우 스님은 5월 26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냉장고 700대와 TV 1300대 등 12억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 같은 해 7월 산청 집중호우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으며, 종단 긴급구호단은 주민들에게 2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100세트를 지원했다.

해외 구호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조계종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구호금 2억원을 전달했고, 아름다운동행은 이재민 임시주거단지에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차양막과 식료품 지원을 이어갔다.

2023년 모로코 지진 때는 국제합동구호단을 파견해 겨울용 텐트 150동, 책가방 500개, 위생키트 500세트 등을 전했으며 2026년 9월 네팔 대홍수에도 1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호가 진행돼 둔체 850가구에 식료품 키트, 베트라와티에 복구물품 300세트가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도 10년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8월 22일 제8회 졸업식을 통해 64명이 학업을 마치면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모두 594명의 농업 전문인력을 배출한 현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신중일 기자

[2026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임]
신라 때부터 꽃피운 천년의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2026. 10. 17 토 — 19 월
금정총림 범어사
준비일 17일(토)
선재동자 수계법회
마정수기 법회
소회일 18일(일)
호국기원 법회
백희가무
대회일 19일(월)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수계법회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바로가기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6 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진심으로 소통 신심으로 포교” 불교중흥 기틀 닦다

주요 어록으로 본 진우 스님 4년



2022년 9월 28일 제37대 임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3일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되며 재임에 성공했다. 제37대 집행부를 이끄는 동안 종단 운영과 재정 안정화, 선명상 대중화, 청년 전법, ‘천년을 세우다’를 통한 미래동력 구축, 대사회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책을 펼쳐왔다. 주요 어록을 통해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을 돌아봤다. 〈편집자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2년 10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밝힌 다짐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불교를 만들 것을 국민과 불자들에게 약속했다.

조직 정비, 재정 안정화 제시

종단 운영에서는 전임 집행부의 사업 계승과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정비를 함께 언급했다. 취임 첫날 교역직 소임자를 임명한 진우 스님은 “36대 집행부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책임감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9월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총무원·교육원·포교원으로 구성된 3원 체제의 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기존 조직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재정 자립도 종단 운영의 과제로 제시했다. 2025년 6월 23일 취임 1000일을 맞아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린 스님은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종단, 지역 본말사에 재정적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종단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건강 증진

진우 스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취임 직후부터 제시됐다. 2022년 9월 29일 종무원 대상 강연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녹여내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변화를 통한 감동을 주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하루 5분 선명상’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다. 9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직접 단상에 올라 선명상에 대한 PT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정신혁명의 시대, 우리가 마음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이다.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제 교류 과정에서도 선명상 대중화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10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존 카밧진 박사와 만난 진우 스님은 명상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현대인들은 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신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면서 “좋은 선수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곧 선명상이기에 무한한 확장성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청년 소통으로 힙불교 이끌다

청년 전법에서는 당사자와의 소통과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첫날 조계사에서 미래세대 청년 포교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오찬했다. 스님은 “종단이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며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물론, 제안도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소통하자”고 말했다. 청년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고 전법 역량을 함께 키우자는 취지였다.

‘힙한 불교’로 관심을 모은 새로운 문화 활동도 격려했다. 2024년 4월 30일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예방을 받은 스님은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음악포교에 선명상 요소를 접목할 것을 제안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하고 대학 포교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올해 3월 17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열정이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하고, 대학별 활동 사례를 들으며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천년 세울 종단 인프라 구축

진우 스님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명상센터 건립,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종단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10월 31일 열암곡 고불식에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굳은 서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2일 천일기도 3주년 기원법회에서는 경주 남산 열암곡 일대 성역화 구상을 밝혔다. “우리는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경주 남산을 전 인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장엄해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약자, 재난 피해자를 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재난 피해자 위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재난안전 체계의 재설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스님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생명과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확고한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며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22일 봉은사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는 노동자와 참사 유족, 이주민, 성소수자 등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의 사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고,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혼란에서는 법적 절차와 소통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사태 입장문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뼈아픈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2025년 1월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의 예방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얼굴이 다 상했다”며 격려를 부탁하자 진우 스님은 웃으며 “국민들 얼굴이 더 상해있습니다”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긴 진우 스님의 일침에 속이 시원하다는 세간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자리이타’적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의 대담에서 진우 스님은 “AI든 무엇이든 선(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며 “AI가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이용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장면으로 본 진우 스님 4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 안정을 다지는 한편,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넓히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다. 매일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며 하루를 열고 불교계 안팎의 크고 작은 현장을 누빈 시간. 제37대 집행부가 걸어온 4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돌아본다. 〈편집자주〉


1


2



3


4


5



6



7


2026년 1월 8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운데)가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왼쪽)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손을 잡고 불기 2570년 신년하례법회를 위해 통도사 설법전으로 향하고 있다.

① 2022년 10월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 ② 2023년 1월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하는 진우 스님. ③ 2023년 5월 3일 스님들을 위한 조계종 직영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개원했다. ④ 2024년 2월 6일 종로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만두를 빚는 진우 스님. 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진우 스님은 직접 강의에 나섰다. ⑥ 2025년 3월 6일 경기도 양평에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문을 열었다. ⑦ 2025년 4월 18일 청춘남녀 만남의 장 '나는 절로, 쌍계사'에 주선자로 나선 진우 스님. ⑧ 2026년 1월 1일 진우 스님은 서울 봉은사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 ⑨ 2026년 3월 17일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임원진들이 진우 스님을 예방한 후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⑩ 2026년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3주년을 맞아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살펴보는 진우 스님과 허민 문화유산청장. ⑪ 2026년 5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우 스님과 이재명 대통령이 헌등을 하고 있다. ⑫ 2026년 6월 14일 한국종교지도자협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과 종교지도자들이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에 참여했다.


8


9


10


11



12

2026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

일시: 2026년 10월 10일(토) 오전 9시 | 무위사 대적광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무위사 수륙대재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지정하신 국행수륙재 입니다.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 유주·무주 고혼을 위하여 차별 없이 법식(法食)을 베풀고 천도를 기원하는 뜻깊은 불교 의례입니다.
수륙대재의 지극한 공덕을 함께 나누며 영가의 극락왕생과 가족의 평안,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의 행복을 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위사 수륙대재 전야제
국악역사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
일시: 2026. 10. 9.(금) 오후 6시 30분
장소: 강진 무위사 대적광전 특설무대

〈수륙대재 영가위패 접수〉 문의 061-432-497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 후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천년 법맥' 빛과 문화로 피어나다

10월 19일까지 영축문화축제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
미디어아트 · 사생대회 등 펼쳐져
전통 불교 의례 · 현대 예술 융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경내 일원에서 '천년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산 1381주년 영축문화축제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 모습.

신라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81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의례와 현대적 예술이 융합된 장엄한 문화의 향연을 펼친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경내 일원에서 '천년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산 1381주년 영축문화축제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축제의 백미이자 대미를 장식하는 개산대재 본 행사는 통도사 창건일인 10월 19일에 거행된다. 이날 오전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자장 율사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영고재(오전 8시 30분)'를 시작으로 불보살을 모시는 '영축삼보 이운(오전 9시 30분)'과 대형 불화를 내거는 '괘불헌공(오전 10시)'이 차례로 산사를 수놓는다. 이어 산문을 연 1381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불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오전 10시 30분)이 봉행되어 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국화장엄'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통도, 고요에 이르다'가 이어진다. 어둠이 내린 천년 고찰의 전각과 자연을 거대한 도화지 삼아 펼쳐지는 첨단 빛의 예술이다.

10월 5일 오후 2시 통도사 삼성반월교 앞 야외무대에서는 통도사 본사 및 여러 말사 사찰 합창단이 동참하는 '제3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린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불교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열린 무대도 준비돼 있다.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축암 인근 메밀밭 운동장에서는 '제5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도화지에 통도사의 수려한 가을 풍광을 직접 담아내는 이 행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존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6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대접하는 '만발공양(오전 11시 30분)'과 다채로운 '영축문화공연(오후 1시)'이 진행되어 자비와 나눔이라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생생하게 실천한다.

10월 17일 오후 2시 부도전에서는 자장 율사를 비롯해 통도사의 천년 법맥을 지켜온 69명의 역대 고승들에게 맑은 차를 올리는 '부도 헌다례'가 엄숙하게 열린다. 헌다례 직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다인(茶人)들이 준비한 차와 다식을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는 '두리차회'가 이어진다.

통도사는 이번 개산대재를 맞아 "천년 고찰이 품고 있는 맑고 향기로운 불교문화의 정수를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훌쩍 산사를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문화 향연을 마음껏 누리며 심신의 평안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로 첫출발

부산불교연합회, 9월 12일
북항친수공원서 '걷기 명상'
정오 스님 "사회 화합" 염원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2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이어오며 국태민안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국가적 불교 전통 축제 '팔관회(八關會)'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걷기'로 올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9월 12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화려한 행사 소음 대신 수많은 참가자들의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막 선언 후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은 북항의 탁 트인 바다 조망을 따라 마련된 수변 산책로 코스를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심의 화려한 풍경과 대비되는 차분한 바닷길을 따라,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일상의 피로를 덜어낸 듯한 여유가 묻어났다.

참가자 박은지(26·부산대) 씨는 "도심 속에서 바다를 보며 조용히 걷다 보니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기분"이라며 "전통 불교 행사라고 해서 엄숙할 줄만 알았는데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통문화에 '디지털 혁신(DX)'이 접목돼 눈길을 끌었다. 출발선과 코스 곳곳에는 국내 불교 행사 최초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폰 'NFC 인증 시스템'이 도입됐다.

걷기 코스 지점마다 스마트폰을 가볍게 태그해 실시간으로 완주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대규모 인원의 동선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해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인증 시스템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범어사의 마음치유 브랜드 '비오마인드(BEO Mind)'와 금정산 숲길 걷기 명상인 '비오워크(BEO Walk)'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전재수 부산시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내외 귀빈이 대거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리를 빛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며 "오늘만큼은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부산의 밤바다와 야경 속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팔관회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인간성 회복을 통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 행사 중 하나"라고 의미를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명상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범어사에서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 수계법회 등 본행사를 차례로 봉행하며 시민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한 염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500년 선맥 이을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

9월 12일, 함양 벽송사 낙성법회
만일 스님 "정진 중심 도량 발원"


함양 벽송사는 9월 12일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500여 년간 이어온 선맥을 계승할 새로운 정진도량의 출발을 알렸다.

함양 벽송사(주지 만일 스님)는 9월 12일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500여 년간 이어온 선맥을 계승할 새로운 정진 도량의 출발을 알렸다.

벽송사는 1520년 벽송 지엄 선사가 중창한 이후 수많은 선지식이 주석하며 수행해 온 지리산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이다. 이번 무문관 낙성은 조사들의 수행 가풍을 오늘에 되살리고 한국불교 간화선 정신을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공부하는 이 공부가 최상의 공부요, 최상의 불사"라며 "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함께 불사에 동참한 이들도 큰 인연과 복을 지은 것"이라고 법문했다.

주지 만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땀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기도로 마음을 모아준 불자들의 원력으로 벽송선원이 명실상부한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벽송선원을 옛 대선사님들의 정법을 이어받은 정진의 중심 도량이자,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정법을 세상에 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발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주지 스님의 리더십과 벽송사 대중의 화합된 모습이 오늘의 훌륭한 불사로 나타났다"고 격려했다. 함양불교사암연합회장 도오 스님은 "무문관이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고 해탈의 광명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벽송사는 무문관 불사의 원만한 성취에 기여한 정석 ㈜대륜건설 대표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또 수행 도량의 낙성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함양군 이웃돕기 자비성금 200만원을 양상호 부군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용궁사 삼존불 새 금빛 장엄

9월 11일, 점안 · 회향법회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는 9월 11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회주 송천 종렬 대종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해동용궁사 회주 덕문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명섭 대종사·종걸 대종사·종상 스님을 비롯한 제방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이번 개금불사는 1976년 해동용궁사 대웅보전을 완공하고 삼존불을 봉안한 이후 오랜 세월 빛이 바래고 손상된 부분을 다시 순금으로 장엄해 부처님의 불신을 청정하게 모시기 위해 추진됐다.

해동용궁사는 2023년 11월 1일 고불식을 봉행하며 개금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삼존불의 노후 금박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탈금(脫金) 작업과 균열 보수, 전통 옻칠, 순금박 개금 등의 공정을 거쳐 이날 불사를 회향했다.

주지 덕림 스님은 "대덕 스님들과 국내외 내빈, 개금불사에 정성을 모아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동용궁사가 부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찾는 불교문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자비암, '자비의 쌀' 기부

9월 14일, 동래구청에 3톤 전달



백중 회향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다.

자비암은 9월 14일 동래구청에 1000만원 상당의 쌀 300포대(총 3톤)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쌀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은 자비암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와 주지 자관 스님의 사비가 더해져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장준용 구청장은 "기탁해 주신 귀한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관 스님은 기부 배경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들이 명절을 즐길 때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반야사, 추석 맞아 자비나눔

9월 11일, 마산회원구에 쌀 기탁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는 9월 11일 대웅전에서 '추석맞이 백미 나눔보시' 행사를 열고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에 740만원 상당의 쌀 200포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자오 스님, 조정현 마산회원구청장과 반야사 임원진 및 신도들이 참석했다.

기탁된 백미는 마산회원구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혜명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일 수록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정현 마산회원구청장은 "기탁해 주신 쌀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래사 불교대학 '무진등', 쌀·라면 기부

9월 14일, 부산 동구청에서



여래사 불교대학 신도 모임인 '무진등(대표 박동범)'은 9월 14일 부산 동구청에 백미 10kg 50포와 라면(20개입) 50박스를 기부했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진등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쌀과 라면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박동범 무진등 대표(여래사 불교대학 부학장)는 "'무진등(無盡燈)'은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로, 한 사람의 불빛이 옆 사람에게 연결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임이 앞으로도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십시일반 성금을 보시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사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전하는 무진등의 훌륭한 취지에 맞게, 이 소중한 선물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속초 보광사에 모신 충혼 358위

9월 12일 영랑호문화제 개최
항일독립운동가 위패 봉안해
보광사 '충효애전당' 현판식
추모행사로 아픈 역사 되새겨

이동격 강원지사장


9월 12일 속초 보광사에서 열린 제10회 영랑호문화제에서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이 항일독립운동가 선열의 위패를 충효애전당에 봉안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358위의 위패가 속초 보광사에 봉안됐다.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는 9월 12일 제10회 영랑호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358위 위패 봉안 추모행사와 함께 보광사 지장전 '충효애전당(忠孝愛殿堂)' 현판식이 봉행됐다.

행사에는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을 비롯해 이병선 속초시장, 독립운동가 후손 노재창·이한솔 씨, 지역 주민과 시민 등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에 봉안된 항일독립운동가는 속초·양양 출신 146위, 인제 118위, 고성 94위 등 모두 358위다. 설악권 곳곳에서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선열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은 "358위 항일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일"이라며 "영랑호문화제를 통해 오래 기억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초·양양과 인제, 고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설악권 지역으로, 오랜 세월 생활과 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선열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심으로써 각 지역의 개별적인 역사를 넘어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다.

358위의 위패는 보광사 지장전 충효애전당 우측 영단에 봉안됐다. 참석자들은 봉안된 위패 앞에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겼다.

또한 충효애전당에는 박석신 화백이 358위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꽃으로 형상화한 추모작품 특별기획전도 마련됐다. 선열들의 이름을 예술작품으로 되살려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이한솔 씨는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석문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슴으로는 일본을 용서하되 머리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며 "그리고 한뜻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패 봉안을 계기로 보광사는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 후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추모사업, 청소년 역사교육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론종 종정 해공 대종사 부도탑 제막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서 49재
3세 종정 해공 스님 부도탑 제막
혜승 스님 "본심 고향으로 돌아가"


대한불교삼론종은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해공 대종사 49재를 봉행하고 부도탑을 제막했다.

평생 수행과 전법, 중생 교화에 힘쓴 해공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3세 종정 해공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종정 혜승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남륜 스님,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 승정원장 진봉 스님, 대산문도 대표 지운 스님, 서천 천용사 회주 지경 스님과 주지 성혜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추모법어에서 "한 번 본래 청정한 본심을 어김으로써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삼도를 드나들며 생로병사를 거듭하게 된다"며 윤회의 이치를 설하고 "오늘 번뇌의 때를 모두 씻고 옛길에 의지해 스스로 본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추모행장을 통해 "대종사께서 걸어오신 길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길이었다"며 "문도들은 큰스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수행자의 정신과 전법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불법을 더욱 널리 펼치고 대중을 이롭게 하는 길에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9재에 이어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제막식은 해공 스님의 수행과 덕행을 기리고 원력을 되새기는 자리로 회향됐다.

해공 스님은 1943년 9월 1일 태어나 1961년 4월 1일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수행과 교학에 뜻을 두고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1989년 대산 혜봉 대종사가 대한불교삼론종을 창종할 당시 뜻을 함께하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탰다. 이후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 삼론종의 정착과 발전에 힘썼으며 총무원장을 거쳐 2001년 10월 14일 부종정에 임명됐다.

2007년 2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제3세 종정에 취임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법홍포와 중생교화에 힘썼다. 지난 7월 28일 세수 84세, 법납 66년으로 원적에 들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윤후 승장, 불교·지역 함께 선양

9월 12일, 2026 처인승첩 기념
김윤후 승장 추모 다례재 봉행



몽골 침략에 맞서 스님과 지역민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일궈낸 처인성의 역사가 올해 더욱 큰 울림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35년간 이어온 처인성문화제가 올해부터 불교계와 용인시, 용인문화원, 처인성기념사업회가 함께하는 통합 행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

제35회 처인성문화제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용인 처인성 일원에서 개최됐다. 9월 12일 열린 기념식과 추모다례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언주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장, 우현욱 경기도의원 등 지역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된 처인성 관련 행사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용인문화원을 중심으로 처인성문화제가 진행됐으며, 처인성기념사업회는 별도 기념축제를 해왔고, 불교계는 김윤후 승장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각각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각 행사의 의미를 살리면서, 행정·문화계·기념사업회·불교계가 함께 처인성과 김윤후 승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자산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았다.

불교계를 대표해 기념사를 전한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처인성이 단순한 옛 성터에 머물지 않고 역사문화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비와 복원 등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축사를 통해 "처인성 전투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승장은 용인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그 역사를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가야 한다" 며 "김윤후 승장과 처인성의 역사를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환지본처 '서고사 나한' 한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개막
환수 나한상 등 126점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과 전주 서고사(주지 진선 스님)는 9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도량으로의 귀환, 전주 서고사 나한'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지원으로 도난 성보의 귀환을 기념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서고사 목조나한좌상을 비롯한 성보문화유산 총 44건 126점이 선보인다.

서고사 나한상은 1695년 조각승 성심 스님 등이 조성한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걸작이다. 지난 2004년 16구 가운데 8구가 도난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환수됐다. 이번 전시는 흩어졌던 16구의 나한상이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시에 앞서 9월 15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서고사 주지 진선 스님은 "도난의 아픔을 딛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툰 나한님들의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치유의 울림을 전해준다"며 "환수의 원력을 모아주신 사부대중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고사찰 황방산 서고사'에서는 후백제 견훤의 명으로 명덕 화상이 창건한 서고사의 유구한 역사와 위상을 살피며 2부 '관상, 나한을 그리며 바라보다'에서는 도난과 환수의 여정을 거쳐 모인 16구 나한상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3부 '발원과 염원을 담다'에서는 나한상 복장물과 조상경, 최첨단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낸 제작 기법과 안료 성분을 소개한다.

전시와 연계한 학술대회는 10월 15일 오후 1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

마곡사 동림회, 1차 학술포럼



조계종 제6교구(교구장 원경 스님) 스님들로 구성된 마곡사 동림회(회장 성관 스님)가 고령화 시대 승려 노후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동림회는 9월 12일 공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승려 노후복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님들의 소득과 의료·돌봄, 주거 등 노후생활 전반의 현실을 살피고 종단과 교구의 역할, 국가복지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곡사는 주차장 수입의 상당 부분을 승려 복지기금으로 출연해 학인, 수좌, 생활이 어려운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곡사 동림회장 성관 스님은 "이번 포럼은 승려 노후복지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부 복지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가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고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80돌 광동학원, 새 100년 도약 다짐

9월 10일 80주년 기념식 개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인묵 스님)이 건학 80년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설립자 운허 스님의 교육 원력을 이어 새 100년을 열겠다고 발원했다.

광동학원은 9월 10일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광동 건학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동 80년의 기록과 운허 스님의 교육 정신이 담긴 〈광동 80년사〉를 부처님께 봉정하며 계승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서원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80년이라는 세월은 한 학교의 역사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며 "〈광동 80년사〉가 지난 역사를 정리한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광동이 어떤 학교가 돼야 할 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87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광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일면 스님에게 공로패를, 〈광동 80년사〉 편찬을 이끈 신용철 광동학원 이사와 부정흠 광동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뮤지컬로 되살린 사명 대사 호국정신

대둔사, 호국불교 창작음악회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는 9월 1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구미 대둔사 산사음악회 호국불교 창작음악회-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를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 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 소원풍등 띄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는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한 창작뮤지컬 '사명 대사'의 주요 장면으로 구성한 공연이다. 지난해 뮤지컬 갈라쇼보다 출연 배우와 공연 장면을 확대해 한층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주지 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둔사에서 사명 대사가 의승군을 훈련시키고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 뜻을 기리고자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연에 앞서 서원 스님은 구미불교어린이댄스팀 파드미댄스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소원풍등축제'가 이어졌다. 대둔사 경내에는 형형색색의 300여 풍등이 밝혀지며 천년고찰의 가을밤을 장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불갑사, 꽃무릇 속 '동행웨딩'

9월 20일, 상사화축제서 취약 계층에 무료 결혼식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9월 20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기간에 맞춰 경내 꽃무릇 군락지와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동행웨딩'과 사찰음식 전시·시식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1시 꽃무릇 군락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동행웨딩'은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뜻을 모아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식에는 황혼 리마인드 웨딩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커플 등이 참여하며 의상과 메이크업, 예식 진행 등 결혼식 전반이 무료로 지원된다.

주례는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맡는다. 웨딩 전문업체 잉컨설팅(대표 오경진)이 예식을 진행한다. 이날 불갑사에 새롭게 들어선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는 사찰음식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주지 덕상 스님은 "이번 행사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0년 소리 인생, '길'이 되다

장사익, 소리판 '길' 공연 개최
10월 27일, 12월 2일 두 차례
세종문화회관 · 대전 예술의전당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96년 11월 24일, 데뷔 2년차인 장사익〈사진〉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처음 섰다.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가 대극장을 채웠다. 그날의 소리판 주제는 '하늘 가는 길'이었다. 그 뒤 장사익은 새로운 소리판을 만들 때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왔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관객과 약속을 이어왔다. 그리고 2026년 10월 27일 오후 7시 30분 그가 다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선다.

올해 장사익 소리판의 제목은 '길'이다. 이번 소리판은 김준태 시인의 시 '길'에서 출발한다. 사람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가 마침내 우리가 저마다 달고 다니는 몸이 곧 길임을 깨닫는 시다.

장사익의 삶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기까지 오래 걸렸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비로소 노래 앞에 섰다. 노래의 길을 걸은 지 30여 년. 장사익이 다시 '길'이라는 제목을 꺼내 든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길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사익에게 헤맨 만큼 길이 생겼고, 돌아간 만큼 노래가 깊어졌다. 젊은 날의 장사익에게는 "이게 아닌데"라는 물음이 있었다면, 지금의 장사익은 김준태의 '길'에서 새로운 말을 만난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길이 어디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실제 장사익의 노래에는 처음부터 길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여행'에는 떠나는 사람의 길이 있었고, '이게 아닌데'에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되묻는 사람의 망설임이 있었다. 장사익의 노래 속 사람들은 좀처럼 반듯한 대로를 걷지 않는다. 헤매고, 돌아가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번 공연은 장사익의 소리 인생 30년을 반추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그렇기에 출연진의 면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음악감독이자 기타리스트 정재열을 비롯해 베이스 정영준, 피아노 앤디킴, 드럼 박현민, 색소폰 장호진, 한국 재즈 1세대 최선배의 트럼펫과 하모니카, 하고운의 해금, 고석용·신승균·최영호의 타악이 함께한다. 여기에 아카펠라 더 솔리스트(The Soilists)와 우니꼬합창단이 더해진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여 년 동안 장사익과 호흡을 맞춰온 음악적 동료들이다.

공연을 기획한 행복을뿌리는판은 "한 사람이 같은 대극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소리판을 3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은 한국 공연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라며 "슬픔을 신명으로, 상처를 위로로 바꾸고 개인의 기억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장사익의 음악세계를 이번 공연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사익의 공연 소리판 '길'은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의전당에서도 만날 수 있다.

17세기 경상권 사찰 대웅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운흥사 · 거동사 대웅전 지정 예고

17세기 조성된 경상권 사찰의 대웅전 2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남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성 운흥사 대웅전.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성 운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전투 중에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재건 과정에서 대웅전이 건립됐다. '고성 운흥사 대웅전'은 〈와룡산운흥사동구신건법당기〉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1682년 건립됐음을 알 수 있고, 대웅전 불단 하대목(下大木) 묵서와 대웅전 기와(망와)를 통해 중수 연혁을 추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운흥사 대웅전은 정면 5칸의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다"면서 "아울러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시기별 단청 형식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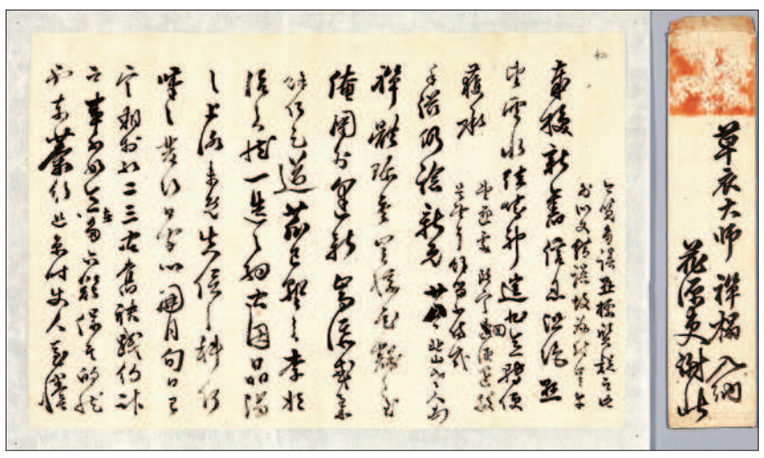
영천 거동사는 신라 의상 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근대기에는 산남의진(山南義陣) 제4차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찰이다. '영천 거동사 대웅전'은 건립 기록은 없으나, 건물의 양식과 목재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등을 통해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거동사 대웅전은 구조적 안전성을 위한 뜬창방과 홍예초방 같은 부재를 사용해 측면 벽체를 구성하는 등 고식(古式) 기법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대량 머리초 문양과 채색 등 내부 단청에서 경상도 지역 사찰 주불전의 양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 가치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영천 거동사 대웅전'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다송' 원래 '동다행'…초의 선사 간찰 번역 '결실'

국립광주박물관 간찰 번역집 발간
박동춘 기증 간찰 86건 155점 완료
유학자, 승려, 관리 등 관계 확인



국립광주박물관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초의 선사 관련 자료 중 86건 155점의 간찰을 번역 ·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이 중 변지화가 초의 선사에게 보낸 간찰을 통해 '동다송'의 원래 명칭이 '동다행'이었음이 확인됐다.

초의 선사가 유학자, 지방 관리, 승려 등과 나누었던 간찰이 번역돼 책으로 묶였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학술총서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 간찰편〉(이하 간찰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禪僧)이자 우리나라 차 문화를 정립한 인물로, '다성(茶聖)'으로도 불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2021년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초의 선사와 관련된 유물 169건 364점을 기증받았다. 이후 기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2022년부터 유묵 번역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시회(詩會)의 내용을 엮은 〈가련유사(嘉蓮遺事)〉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시와 산문을 수록한 〈시문편(詩文篇)〉을 발간했다. 이어 올해는 86건 155점의 간찰에 대한 번역·정리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초의 선사 유묵 번역사업의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됐다.

〈간찰편(簡札篇)〉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됐다. 간찰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로, 당시 삶의 모습과 감정, 인간관계를 생생히 보여준다. 수록된 간찰은 초의 선사가 교유했던 유학자, 승려, 지방 관리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스님의 교유 관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초의 선사가 저술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서(茶書) 〈동다송(東茶頌)〉의 원래 명칭이 〈동다행(東茶行)〉이었으며, 1837년 변지화(卞持和)의 부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했음이 변지화의 간찰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초의 선사가 스승으로 모셨던 정약용과의 인연이 손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아들 정학유, 손자 정대무의 간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간찰편〉 발간을 통해 초의 선사의 교유 관계와 사상, 문화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증품들을 전시로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기증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오늘의 소리'로 만나는 성덕대왕신종

'소리: 성덕대왕신종'
10월 31일~11월 1일
국립중앙博 극장 용서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오늘의 소리로 풀어낸 공연이 열린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이하 재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기획공연 '소리: 성덕대왕신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소리: 성덕대왕신종'은 성덕대왕신종을 둘러싼 세 가지 숫자를 모티프로 총 3부에 걸쳐 펼쳐진다. 신종의 조형적 비례를 상징하는 '√2', 깊고 낮은 울림을 보여주는 '64Hz', 신종이 완성된 해인 '771년'이 각각 종의 '탄생·울림·염원'을 상징하며 극의 서사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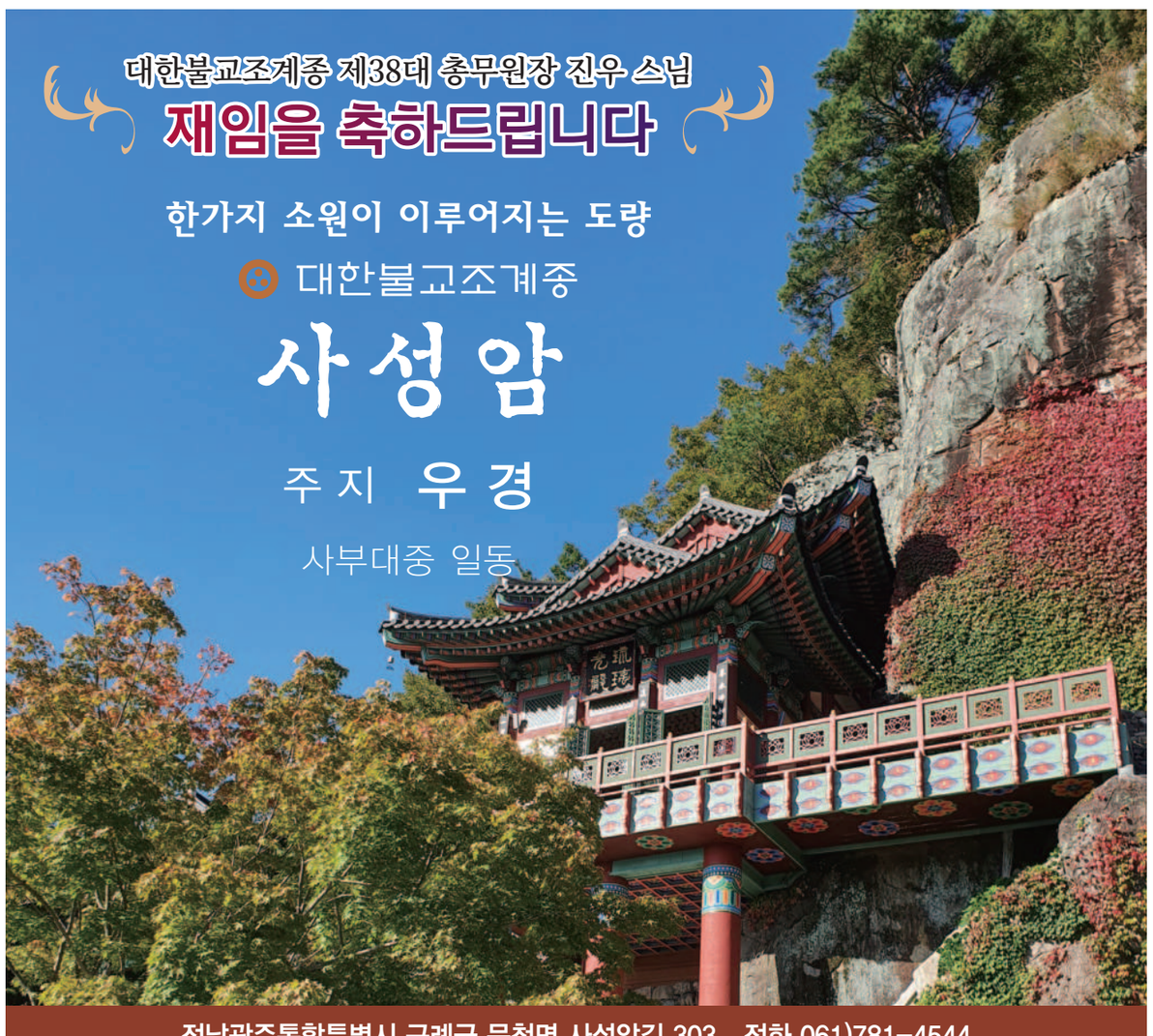
성덕대왕신종이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그리는 1부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가 흙과 불, 쇠가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돼 첫 울림에 이르는 과정을 생황의 호흡과 화음으로 표현한다. 2부는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금속 현을 두드려 만들어내는 맑고 강렬한 음색으로 종의 표면에서 퍼져나가는 공명의 진동을 그려낸다.

3부는 신종이 완성된 771년에서 출발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으로 시선을 옮긴다. 이에 대한 공연은 전통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도밴드가 맡았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문화유산에 공연예술을 접목해 관객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성
주지 두현
신도회 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주지 우경
사부대중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佛母 조성 '미소 돌호랑이' 만나볼까

무우수갤러리, 오채현 조각전
'태초의 녀석들' 9월 28일까지
'해피 타이거' 연작 등 선보여


오채현 작가의 작품 '해피 타이거(Happy Tiger, 2023)'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모(佛母) 오채현 작가가 조성하는 석불은 일반적으로 도량에서 만날 수 있는 석불과는 그 결이 다르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부처님, 힘든 이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부처님, 심지어는 유명 아이돌 멤버의 형상을 한 부처님도 존재한다. 항상 미소를 머금은 채로. 그런 오 작가가 '웃는 호랑이' 연작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오 작가의 조각전 '태초의 녀석들(KOREAN PRIMiTiViSM)'을 9월 9일부터 2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태초의 녀석들'의 첫 번째 이야기로, 오 작가의 호랑이 조각과 초기 석조 작품을 통해 우리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자리다.

호랑이는 암각화에서 단군신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등장해 왔다.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자 신성한 존재였으며, 때로는 해학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상상 속에 함께해 왔다. 작가의 호랑이는 이같은 전통적인 호랑이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거나 매끈하게 다듬는 대신, 돌이 가진 단단하고 거친 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깎고, 긁고, 붙이고, 덧대는 손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어간다. 두려움과 친근함, 신성함과 해학을 함께 품어온 한국의 호랑이는 작가의 손끝에서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원초적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오 작가는 오히려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오래된 재료인 돌을 통해 과거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끈한 완성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의 힘을, 정제된 아름다움보다 손의 흔적을, 길들여진 형식보다 살아 있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서 태어난 유쾌하고 엉뚱한 존재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길들여지지 않은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

전시장에 모인 호랑이들과 초기 조각들 역시 저마다 다른 표정과 몸짓으로 하나의 '호랑이 숲'을 이룬다. 무우수갤러리는 "장난스럽고 엉뚱하면서도 거칠고 생생한 이 존재들은 관람객에게 정제된 아름다움 너머의 살아 있는 생명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선사한다"면서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호랑이가 이렇게 오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태초의 녀석들' 전시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전했다.

오 작가는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했다. 2020년 무각사 특별전, 2018년 월정사 '해피붓다전', 2017년 통도사 '붓다의 미소전' 등 3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동아시아 고대 판목 '한자리에'

고판화박물관 개관 23주년展
30년 수집 판목 대표작 전시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판화박물관 특별전에서 처음 공개되는 조선시대 범종 문양 거푸집.

동아시아 고대 판목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름다운 기록 유산-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 2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선학 관장이 지난 30여 년간 수집한 판목 3700여 점 중 대표적 판목 50여 점과 인출 작품 50여 점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동안의 전시를 통해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았던 판목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이 조선시대 최고(最古) 고판화인 오륜행실도 판목을 일본식 화로 상자인 '이로리'로 만든 것으로, 이를 발굴·공개했을 당시 고판화박물관은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른 판목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최고 판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한글 소설 판목으로 만들어진 유충열전 분첩을 비롯해 심청전 등으로 만들어진 보석함도 전시된다.

새롭게 주목받을 판목들도 공개된다.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조선시대 범종의 문양을 찍었던 거푸집 역할을 한 판목이다. 판목의 앞면은 보살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범종의 유두 부분과 범종을 장식하는 당초덩쿨문이 새겨져 있다, 이를 확인했던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은 "이 판목이 조선시대 범종의 문양 거푸집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한 있다.

이밖에도 대한제국 때 사용됐던 호적명부를 찍던 판목과 일본의 '춘일 대장경' 판목도 눈길을 끄는 전시 유물이다.

한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열린 판목 특별전을 종합하는 전시"라며 "고판화의 특성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확인하고 미래세대에 주요한 콘텐츠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033-761-7885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기

⑰ 불구부정(不垢不淨)

不 垢 不 淨

인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든다. 한편에서는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이들이 있다. 이토록 상반된 모습이 모두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간을 '죄인(원죄론)', '운명의 노예(숙명론)', '본래 선한 존재(성선설)', '본래 악한 존재(성악설)'와 같은 고정된 틀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을 어떤 고정불변의 본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공성(空性)'이며,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성립한다는 '연기성(緣起性)'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바탕을 '불성(佛性)'이라 한다.

초기불교 경전 〈상윳따 니까야〉에서 설하는 연기법의 핵심, 곧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이치가 바로 인간 성품의 실상을 보여 준다.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거나 악한 실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대지에 비유해 보자. 텅 빈 대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고, 꽃을 심고 가꾸면 꽃밭이 된다. 쓰레기장과 꽃밭은 처음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 무엇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인간의 성품도 이와 같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선과 악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조건과 선택이 만든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타인에게 미소를 건네면 미소 짓는 사람이 된다. 인간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과 행위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존재다.

〈반야심경〉의 '불구부정(不垢不淨)'은 바로 이 지점을 드러낸다. 우리의 참된 성품에는 본래부터 고정된 더러움(오염)도, 깨끗함(청정)도 없다. 맹자의 성선설이 인간에게 도덕적 선의 가능성이 본래 내재해 있다고 본다면, 불교의 불성은 선과 악 어느 한쪽으로도 고정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품는 대지와 같다.

공성의 지혜는 우리를 '자기 규정'이라는 감옥에서 풀어 준다. 과거의 업과 환경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를 빚어 간다.

근현대 선불교의 거장 만공 스님(1871~1946)이 말씀하신 '용무생사(用無生死)'의 경지도 이러한 주체적 삶의 극치이다. 이는 현실의 번뇌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현실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應無生死] 그 조건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로 자신을 가두는 말라.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을 내려놓고 텅 빈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역대급 템플스테이 이벤트 뜬다

문화사업단,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운영

템플스테이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역대급 할인 이벤트가 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6년 하반기 여행가는 달 캠페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이벤트로 운영한다. 해당 이벤트는 전국 104개 사찰에서 총 7800여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이벤트는 내수경제 진작 및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광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10월 14일 오후 1시에는 서울·경기·인천·충청·세종권 지역 사찰 예약 오픈하며 10월 15일 오후 1시에는 강원·전라·경상·대구·부산 지역 사찰 예약 오픈한다.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사찰 예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모든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경천 우석

신도회 &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6~9/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뭐꼬	퇴옹성철	장경각
2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장경각
3	생각이 길이다2	용타	민족사
4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5	스님의 맛	장보배	모과나무
6	묘법연화경	광우,정목	김영사
7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총카파/청전	지영사
8	아비담마 길라잡이(1)	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9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불광출판사
10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2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류시화	경서원
3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명상 온톨로지	정순일	운주사
5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6	설전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7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8	불멸(3)	이각	지혜의눈
9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10	보살이 되는 중입니다	샨티데바	붓다스쿨

불화에 깃든 간절한 마음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불화
김소연 지음
미술문화
2만2000원

고려-조선 대표 불화 40점 소개
불보살 모신 예경 대상이자 성보
망자 · 산 자 위로하는 마음 담겨
숨은 상징과 의미로 새롭게 읽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684년 영주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괘불은 1745년 청풍(지금의 제천) 신륵사에 옮겨 안치됐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미술문화



'부석사 괘불' 속 석가모니불의 설법회에 모인 군중들. 사진 제공=미술문화

불화(佛畫)는 법당에 모셔진 예경의 대상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화다. 그러나 한 폭의 불화에는 수많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가족의 건강과 국가의 안녕,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불화 조성을 발원한 이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붓을 든 화승(畫僧)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불화 앞에서 기도를 올린 이들까지. 불화는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왔다.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불화〉는 고려부터 조선 말까지 제작된 수월관음도, 아미타내영도, 감로도, 괘불 등 대표적인 불화 40여 점을 소개한다. 불화의 아름다움과 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화를 만들고 후원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부석사 괘불'이다. 1684년 제작된 이 괘불은 높이 9m에 달하는 대형 불화다. 그런데 영주 부석사에는 이를 모본(母本)으로 1745년 새롭게 제작한 괘불이 한 점 더 있다. 부석사는 왜 60년 만에 다시 괘불을 제작했을까?

저자는 괘불에 남겨진 화기(畵記)를 바탕으로 그 제작과 이동 과정을 추적한다. 1723년 충청도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수해를 입은 청풍 무림사가 인근 월악산 자락의 옛 신륵사터에 절을 다시 세웠고, 이후 1745년 부석사가 신륵사에 괘불을 보시했다는 것이다. 재난을 딛고 일어선 이웃 사찰에 대한 응원이자, 상처 입은 백성들의 위로하려는 마음이 불화와 함께 전해졌다는 해석이다.

1235년 고려 무인 김의인이 발원한 '오백나한도'도 흥미롭다. 몽골의 침입이 이어지던 시기, 황해도 해주의 하급 무관 김의인은 동료들과 함께 '오백나한도' 제작을 이끌었다. 그들은 불화에 국토의 평안과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고 침략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비록 기도가 전쟁을 멈추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절박한 염원은 8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인물의 표정과 몸짓, 옷과 장신구, 화면 한구석의 작은 사물처럼 지나치기 쉬운 세부 요소를 자세히 살피며 복잡한 도상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가령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수월관음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의상 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아 두 줄기의 대나무가 솟은 자리에 낙산사를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설화와 연결된다. 그림 속 작은 대나무 두 그루가 우리 불교문화의 독특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또한 보스턴미술관 소장 '치성광불강림도'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 같이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불화는 선(線) 일러스트를 배치해 각 존재의 이름과 역할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불화를 발원하고 후원한 이들, 사찰에 모시고 예배한 사람들, 이를 옮기고 수집하고 연구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책 속 불화에 오래 눈길이 머문다.

저자 김소연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 치성광불도 연구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림박물관 학예사를 지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고려 불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해상 신앙과 시각문화를 연구하며 불교미술 연구에 디지털 도구를 접목한 방법론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나를 만나는 여정



쉼 숨 섬
김한수 지음
생각정원
2만원

멈추고 숨 쉬고 홀로 서는 방법
스님 · 신부 등 27명의 마음 찾기

"누구나 태어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23년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저자가 지난 2년간 '조선일보'에 연재한 '마음을 찾는 사람들' 인터뷰 가운데 27명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종교와 직업, 나이를 넘어 '인간은 어떻게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책의 제목인 '숨 쉼 섬'은 가평 '가락재 영성원' 마당에 세워진 비석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안식과 휴식(쉼), 영적인 호흡(숨)을 통해 스스로 홀로 서는(섬) 순환 고리를 뜻한다.

책에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힘써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영성가 안셀름 그륀 신부, 명상 연구자 존 카밧진을 비롯해 래퍼 김하온, 만화가 이현세, 화가 박대성 등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떤 이는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자 했다.

불교의 선(禪)과 가톨릭의 관상, 개신교의 묵상, 원불교의 좌선, 현대의 마음챙김까지 이름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들이 마주한 끝은 하나였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에 이르는 것.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선(禪)으로 가는 문"이라고 설명한다. 궁극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명상 수행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명상을 통해 선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는 '진짜배기 선'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다.

"불교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평안,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명상'이 하나의 일상 언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국민체조'를 했듯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마음 평안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책에서 말하는 명상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호흡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 짧은 멈춤만으로도 생각의 소음이 잦아들고, 자신을 몰아세우던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작은 여백이 나를 만나는 자리가 된다.

여수령 기자



〈쉼 숨 섬〉은 27인의 인터뷰를 통해 삶의 의문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힘은 자기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은 지난 6월 영암 도갑사에서 열린 '2026 선명상축제 영암'에서 진행된 소리치유 선명상 프로그램. 현대불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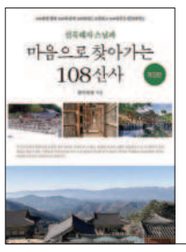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

대운사 주지 주석
연지사 주지 지안

재)명경문화재단 KUmuda



“사찰 순례 문화 확산되길”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스님 지음
시간여행
3만원

기도회 20주년 맞아 개정판 발간
7곳 추가한 108곳 순례순 구성
시·사진 교체, 지도·명단 수록도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혜자 스님이 간담회에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개정판을 소개하고 있다.



2006년 10월 통도사에서 열린 108산사순례기도회 첫 순례 모습. 사진 제공=시간여행

“이번 개정판이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불교와 사찰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됐으면 합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이하 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기도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개정판을 출간했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는 전국 사찰 108곳의 역사와 현황, 전설과 일화를 담아 2006년 처음 발행됐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산사를 찾는 여유를 선사하며 지금까지 23쇄를 찍어낸 불교계 대표 베스트셀러다.

혜자 스님은 9월 15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선묵 혜자 스님의 나를 찾는 백팔기도문’을 계기로 순례길을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순례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펴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개정판은 기도회가 거쳐 간 순례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사찰의 역사와 전설, 문화유산 등을 두루 망라했다. 기존 판본에서 누락된 사찰 7곳을 새롭게 추가해 혜자 스님이 직접 다녀온 108개 사찰을 엄선했다. 새롭게 교체한 사진과 함께 불보살의 가피와 스님들의 일화를 담은 시가 게재돼 눈길을 끈다.

지역별로 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명단을 추가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 책을 들고 108산사를 참배한 뒤 해당 사찰 종무소에서 낙관을 모두 받은 순례자에게는 108산사 이름이 새겨진 108염주가 선물로 주어진다.

2006년 통도사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9년간 연인원 약 65만 명, 버스 7천여 대가 동원되는 등 한국불교 신행사에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웠다. 불자들이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과 108배를 올리며 이어간 대장정은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회향했다.

대사회적 보살행에도 큰 궤적을 남겼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양어머니 인연 맺기, 군 장병을 위한 초코파이 4500만 개 보시, 장학금 및 약사여래 보시금 전달 등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내소사 순례 당시에는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에코컵 5000개를 제작·배포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혜자 스님은 순례 기간 동안 감동적인 순간들을 회고했다. 스님은 “첫 순례지인 통도사를 시작으로 회향 날까지 순례 중 무지개가 뜬 적이 70번이 넘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순례를 완주한 가족 이야기, 10년 동안 승합차에 침대를 설치해 노모를 모시고 순례를 다닌 아들의 일화 등을 전했다. 또 108산사 순례 회향 후 도안사에 파랑새가 찾아와 둥지를 튼 시기에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사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혜자 스님은 “일본의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처럼 한국에서도 이 책 한 권을 들고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가며 신심을 다지는 순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몸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도 이 책을 통해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를 이어가며 삶의 보람과 치유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타 스님 번역으로 읽는 ‘선문촬요’



과거칠불과 삼십삼조사
일타 스님·김현준 편역
효림출판사
8000원



혈맥론
달마 대사 지음
일타 스님·김현준 편역
효림출판사
5000원

조사 전법게·진영 등 수록
달마 저술로 보는 선 핵심

한국 선불교의 핵심 지침서인 〈선문촬요〉가 일타 스님(1929~1999)의 육성 번역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선문촬요〉는 1907년 청도 운문사와 1908년 범어사에서 경허 스님의 지시로 한문본 상·하 2책으로 처음 편찬됐다. 이후 1968년 설봉 학몽 스님이 한문 토를 붙이고, 내용을 보강해 1책으로 통합 발간했다. 하지만 한문본으로만 전해져 일반 독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생전 출가 50주년을 맞은 일타 스님이 직접 남긴 한문본 번역 음성 원고를 바탕으로,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윤문해 ‘선문촬요총서’ 두 권을 펴냈다.

1권 〈과거칠불과 삼십삼조사〉에는 석가모니불과 이전 부처들을 다룬 ‘과거칠불’, 인도 마하 가섭 존자부터 중국 혜능 대사까지 이어지는 ‘삼십삼조사’의 법맥이 담겼다. 여기에 설봉 스님이 꼽은 한국 선종의 중흥조 3인인 불일 보조 국사·태고 보우 선사·경허 성우 선사의 생애를 더했다. 각 조사의 전법게(傳法偈) 번역에 공을 들였으며, 정밀 보정한 진영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2권 〈혈맥론〉은 달마 대사의 저술을 바탕으로 선의 핵심을 다룬다. ‘마음이 곧 부처’와 ‘자기 본성을 봐야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보시 등 어떤 행위도 모두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의 구분만 있던 원문을 5개 장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한글·한문 대조본으로 편집했다. ‘선문촬요총서’는 〈선문촬요〉에 수록된 〈관심론〉·〈진심직설〉 등 총 20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배희정 기자

“‘무아’와 ‘일심’은 하나로 회통”
〈無我〉 〈一心〉



무아와 일심
한자경 지음
김영사
2만2000원

무아론·유식학·선불교 고찰 논증
동국대 강좌 바탕…동영상 강의도

몸, 감정, 생각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붙잡을 만한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자아가 없는데 죽음 이후 무엇이 다음 생으로 건너가며,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인가. 무아(無我)를 말하는 초기불교와 일심(一心)을 말하는 대승불교는 서로 어긋나는 가르침일까, 아니면 하나의 진실을 가르치는 두 개의 언어일까.

불교를 접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품었을 이 난제에 40여 년간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온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답을 내놨다. 신간 〈무아와 일심〉을 통해서다.

이 책은 2024년 가을 동국대에서 진행된 ‘마음과 불교’ 7회차 강의안을 바탕으로 인용 출처와 논지를 보완해 엮어낸 학술적 결실이다.

한 교수는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와 대승불교의 대표 사상인 일심이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로 회통해 서로를 완성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대승 경전 등장 이래 계속된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나 일본의 비판불교 사조에 끌려 한국불교의 뿌리인 대승불교를 저평가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승불교 사상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가르침의 본뜻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은 ‘무아인데 왜 일심을 말하는가’, ‘자아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고 해탈하는가’ 등 핵심적 질문을 단계별로 깊이 있게 파헤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초기불교의 무아론에서 출발해 유식학의 8식설·종자설,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진여일심과 선불교로 논의를 확장한다. 12지연기와 무명의 순환 구조를 분석해 고정된 자아 없이도 업의 흐름에 따라 생사가 이어지는 윤회 메커니즘을 밝히고, 현상 세계 너머 불생불멸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 곧 해탈임을 밝힌다.

나아가 유식학을 바탕으로 심층 마음을 비롯해 대상을 인식하고 세계를 빚어내는 마음의 비밀을 살피고, 〈대승기신론〉의 본각(本覺)·불각(不覺)·시각(始覺)을 통해 수행이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임을 일깨운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불교가 아견(我見)과 아집(我執)을 깨뜨리기 위해 무아를 강조했다면, 대승불교는 본래 마음의 빛을 상기시키고자 일심을 부각했다. 두 가르침 모두 허망한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그 바탕인 성(性)을 일깨우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체의 무상(無常)·고(苦)·무아를 깨닫는 마음 자체가 무상과 고의 영역에 갇히지 않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체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허망한 ‘공(空)’이자 ‘가(假)’임을 입증하려면 이를 넘어선 절대적 시점이 전제돼야 하며, 그 시점이 바로 깨달은 마음인 ‘일심’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일심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며, 무아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 경전인 〈우다나〉의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란 구절을 들어, 연기 너머 불생불멸하는 여래심·진여심·일심이 있기에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림을 지운다고 종이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 수행 역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춰진 깨달음의 성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책은 무아와 일심, 윤회, 해탈이 하나의 일관된 사상으로 회통함을 보여주며,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대승의 불이(不二)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하나로 통함을 논증해 낸다.

강의식 문체가 특징이며, 책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K-MOOC 동영상 강의도 시청할 수 있다.

배희정 기자



화내야 할 땐 화내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⑱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관련 경전 해석의 오류

흔히 보면 불자들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해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경전 해석과 관련해 보충 설명을 좀 하고자 한다. 자신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성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겠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불교서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는 오해
화내선 안 되는 경우 제외하고 화내야

극단적 피해에도 무대응 참음은 잘못돼
〈금강경〉 곡해, 법에 대한 집착인 법상

상황 맞게 가르침 적용할 수 있어야 해
억울할 땐 하소연하고 정당히 대응해야

화내지 말라는 데 대한 문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해를 입혀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저항하는 것도 화내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교를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화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 한다.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불자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전의 가르침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전의 글귀에 얽매여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로 선정에 들어가거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는 악업을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잘못 해석되는 경전이 많지만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은 〈금강경〉일 것이다. 〈금강경〉의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에서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가리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궁녀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었다는 이유로 인욕선인의 사지를 마디마디 베는 고통을 주었는데도, 인욕선인은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었으며 조금도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금강경〉의 이 부분을 읽는 불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심한 피해를 보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금강경〉의 이 부분은 내면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에 대한 가르침이지 현실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대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라든가 '내 몸'이라는 생각, 즉 아상(我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행 단계에서 넘어야 할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과거 생의 이야기라는 형태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결론은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반드시 경전의 사례처럼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죽거나 병신이 돼야 한다는 말이 된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수행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참아야 할 일이 있으면 참는 것이고,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싸우지 않고 참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상이 없다거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다. 내면적으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바깥으로 상대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상이 없어도 상대방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아상이 있어도 상대방과 싸우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면에서 아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공격하는데도 도인(道人)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명예욕 때문에, 혹은 싸우다가 얻어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싸우지 않더라도 아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어떠한 극단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상(法相)'이라고 한다. 법상이란 '법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로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 또는 종교적 가르침(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법(法)'이라고 한다)에 얽매여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곳에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금강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많이 읽기만 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서 〈금강경〉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보왕삼매론'에 나오는 다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가르침 역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거나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냥 참고 있으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 언론에 사흘이 멀다 하고 대형 범죄 사건이 보도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보왕삼매론'은 약 600년 전 중국 명나라 초기, 우리나라의 고려 말·조선 초에 해당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봉건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말이다. 즉 같은 마을에서 어느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는 부락공동체의 전근대사회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므로 굳이 내가 나서서 밝히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와 같이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닌지에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하소연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의 상황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한 사람을 정당화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심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도 무조건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수관음기도도량
해동용궁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기장읍, 해동용궁사)
Fax (051)722-7333 이메일 : hd7744@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산 불 국 사
회 주 연봉 태현
주 지 중경 가섭
신도회장 김양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광주시 수레안길 22 ☎ (031)719-0408



일면 스님 “80년 삶, 자비행으로 회향”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⑨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출판 봉정법회

9월 14일 산수연 및 출판 봉정법회
회고록 통해 자비행 의미 되새겨
67년 수행·종단 활동 발자취 담겨
“다시 받은 몸, 생명 살리는 데 매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4일 앰베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두산 일면 대종사 산수기념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일면 스님과 보선·철웅·정여·돈관·호명·혜수 스님 등이 단상에 올라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모습.



봉정법회에는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회고록 발간을 축하하고 일면 스님의 원력 성취를 기원했다.



일면 스님은 해외지원 기금과 (재)해인동문회 장학금으로 각각 1000만원 씩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은 ‘생명나눔’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원력을 다졌다.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1300여 명에게 45억원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9만여 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7만 명, 법인 회원 25만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산수를 맞아 출간한 〈생명나눔, 일면입니다〉에는 이 같은 일면 스님의 67년 출가 수행과 종단 활동, 생명나눔의 발자취가 담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정법회는 일면 스님 헌정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영상에는 일면 스님의 출가시절부터 최근까지 67년간의 발자취가 담겼다.

이어진 봉정식에서는 일면 스님과 보선 스님, 철웅 스님, 정여 스님, 돈관 스님, 호명 스님, 혜수 스님 등이 단상에 올라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1959년 13살에 걸망을 지고 탁발 나온 스님을 따라 부처님께 귀의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부처님 은덕으로 살아온 세월”이라고 지난 삶을 회고했다. 이어 “평생 부처님과 시주 은혜를 갚는다는 원력으로 살아왔지만 이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 소멸하는 불법의 이치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제아무리 거창한 불사라 해도 흘러가는 물에 비친 달과 같은 수월도량(水月道場)임을 여든을 맞이하고 보니 더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지난날 자취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냈다”면서 “유일한 자랑은 출가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 제자로 조계종도로 남은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역행보살의 마음으로 냈으니 모쪼록 여러분은 저와는 반대로 살면 성공한 삶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해 유쾌함을 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면 스님의 산수를 축하하며 지난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나눔을 향한 원력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일면 스님 삶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치하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일면 스님과의 60여 년 인연을 회고하며 “일면 스님이 만들어온 생명나눔의 큰 물줄기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문도를 대표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일면 스님의 나눔의 뜻을 잘 새겨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해외지원 기금과 (재)해인동문회 장학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되새겼다.

행사는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화선무’ 공연과 불암사·보현사 연합 합창단의 축하 음성공양으로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 일면 스님의 산수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은혜에서 나눔으로”

80년 삶의 자취 담겨



최근 출간된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는 일면 스님의 팔십 평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이다. 어린 시절부터 출가와 수행, 종단 교육과 행정, 포교와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스님이 걸어온 삶의 자취가 담겼다.

책의 중심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직책보다 ‘은혜’와 ‘생명’에 대한 성찰이 자리한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돌려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특히 일면 스님은 2000년 간 이식을 받은 뒤 얻은 새로운 삶을 생명나눔 실천으로 회향해 왔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새 삶을 얻은 사람이 다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불교의 자비와 회향의 의미를 찾았다.

팔순을 맞아 자신의 삶을 돌아본 스님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인연을 ‘부처님’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이룬 성취보다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들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눔’을 강조한다.

스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날은 바로 오늘이며,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지금 이곳”이라고 말한다. 입적하는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회고록에 담았다.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는 생명의 의미와 삶의 회향에 관한 기록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생명을 어떻게 다시 세상에 돌려줄 것인지, 은혜를 어떻게 나눔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일면 스님의 답이기도 하다. 임은호 기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일시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오프닝 12:45 ~ 13:00
불암사 합창단 I 마하무용단

본행사 13:00 ~ 13:30
일면장학금 전달식 I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식
치료비 전달식 I 인사말 및 축사

문화공연 13:30 ~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가수 적우, 염유리, 황인아, 신명근, 마하무용단

부대행사
장기기증 캠페인 I 불암사 국화축제
불암사 신도회 먹거리 장터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적우

염유리

황인아

단장 정현숙

마하무용단

신명근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BBS 불교방송 | 협찬 문화체육관광부 남양주시 현대불교 법보신문 불교신문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95호 | 18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35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면적 : 약1,200평(대지, 임야 등)
- 대웅전, 요사채 약 80평
- 가액 : 8억원(토지 공시지가 이하)
- 사찰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내
- 규모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방2개
  거실, 주방 등
  밖에 컨테이너 1동
  바로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음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 가액 : 2억 5천(조정 가능)

010-3007-5611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 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0억원

010-4585-6807

암자터(급)안내

- 대지 : 184평, 기도 수행도량
- 해발 600m, 주차, 텃밭, 실사용 500평
- 조용한 자연환경, 전기, 청정계곡, 토목공사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8천만원

스님 직접 010-9393-496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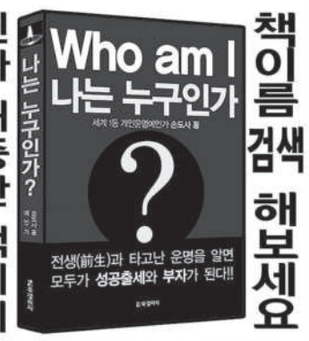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010-5105-5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대인관계에 고민과 근심, 성공과 실패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책은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책뿐이다"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 사업운 | 매매운 | 승진 | 합격 | 궁합 | 결혼운 | 택일 | 이사방향 | 개업방향 | 한 해의 길월·흉월 | 한 달의 길일·흉일

❖ 도서 구성 및 학습 안내 (한글만 알면 누구나 독학 가능)
책 구성 | 주역 부문 : 총 127문답 구성 (기초 이론 12p)
사주 부문 : 총 120개 구성 (기초 이론 40p)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
큰 글씨로 시력의 불편 최소화

❖ 저자가 전하는 확실하고 쉬운 학습 방법
주역이든 사주든 책에서 "기초에 암기하라고 지정한 내용"의 60%만 우선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해명법사(解明法師) 김서경(金抒經)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김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 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출간.

판매처: 010-3341-4867 | 판매가: 택배비 포함 55,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검색_서경철학관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64 (102호)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명상의 원리부터 깨달음까지!

명상 온톨로지

사띠와 사마디를 중심축으로 불교·심리학·뇌과학·물리학을 아우르며 명상의 원리와 수행 체계를 조직적으로 정립한, 명상의 전체 지도라고 할 역작이다.

정순일 지음/신국판/양장/656쪽/값 43,000원

방대한 티벳 불교의 전체상을 한 권으로!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불교학의 석학으로 꼽히는 저자가 관념적 신비주의와 서구적 통념을 넘어 역사·교학·의례·사회를 아우르는 거시적 시각으로 티벳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매튜 캡스타인 지음, 한재희 옮김/신국판/192쪽/값 15,000원

잠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인연!

쉬어 가고 쉬어 가라

부산 대원사 법지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줄 이야기들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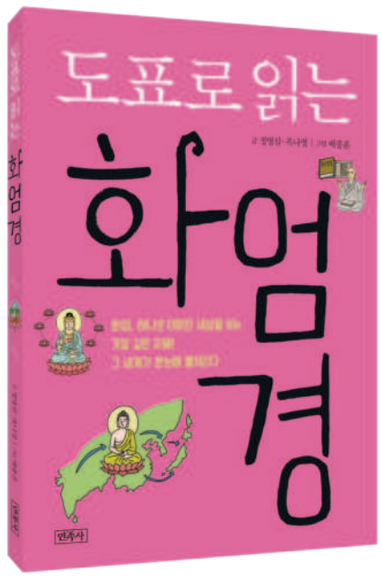
법지 지음/국판/28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80권『화엄경』, 한 권으로 읽는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화엄의 세계
복잡한 사상과 선재동자의 여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읽는다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방대한『화엄경』의 전체 구성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한눈에!

화엄이 말하는 핵심 사상
어려운 교리를 그림과 해설로 쉽게!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입법계품」의 장대한 구도 여행까지!

글 정병삼·옥나영 | 그림 배종훈 | 192쪽 | 18,500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스무 차례 번역과 퇴고 끝에 살려낸 '임제의 말'

성철 스님이 세계 4대 귀서貴書로 꼽은 '선어록의 왕'『임제록』!

천 년을 건너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강렬한 선어禪語, 생각에도 깨달음에도 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말하다!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새롭게 다가오는 임제의 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의 지혜

고광 지음 | 760쪽 | 32,000원



고광 스님의 도장 깨기 연작

'고광 스님의 도장 깨기'는
당연한 해석에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 말씀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 보는 공부다!

고광 지음 | 430쪽 | 24,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기술 우위보다 고통 앞 책임이 우선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⑱ AGI, 인간의 자리를 다시 묻다



인간에게 남겨야 할 것은 마지막 남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가장 유능한 인간만을 위한 표어가 된다. 'AGI'라는 이름에 합의할 때까지 이 질문들을 미룰 이유는 없다. 이제 인류가 통과해야 할 문턱은 자신보다 영리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에만 있지 않다. 자신이 가장 영리하지 않아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문명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AGI가 도래했다'?

"AGI가 도래했다." 지난 9월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오픈AI의 새 모델 'GPT-6 아스트라'를 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사흘 앞서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도 아스트라를 공개하며 지금을 'AGI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간처럼 폭넓은 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요원했던 목표가 어느새 현실이 되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선언이 공식적인 인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픈AI의 공식 발표에서도 여러 영역의 성능 향상을 설명하지만, AGI 달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환호와 의문이 교차하는 이 장면 사이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빌 게이츠는 '게이츠 노트'에 발표한 글에서 인류에게는 AGI 진입 속도를 늦출 계획이 없다고 경고하며, 노동의 대체와 통제 상실의 위험을 함께 지적했다.

그렇다면 AGI란 무엇인가?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AGI는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특정 과제에만 특화된 AI를 넘어 사람처럼 여러 분야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폭넓은 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한 과목의 문제만 잘 푸는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과목도 배우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 낯선 문제를 푸는 기계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처럼'과 '폭넓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갈린다. 오픈AI의 헌장은 AGI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부분의 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반면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성능과 범용성을 구별하고, 실제 활용에서 부여하는 자율성도 따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 사람의 개입 없이 어디까지 해내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평균적인 사람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서도 문턱은 달라진다. 특정 시험의 높은 점수가 현실의 다양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보장도 아니다. 이런 기준이 다른데 하나의 도착점을 말하니, 도달 여부를 둘러싼 판단도 엇갈리는 것이다.

그 와중에 게이츠의 경고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2023년만 해도 "위험은 실재하지만, 관리 가능하다"라며 AI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전망했던 그가 스스로 그 판단을 거뒀다는 데 있다. 2026년의 그는 이번 전환이 세대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몰아치리라 진단하며, 이를 완화할 조율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재 아스트라가 AGI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는 늦어져도, 이미 그 이름으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고 판단을 위임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인간의 고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끼칠 것이 명백하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의 과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기계의 능력을 검증하는 일과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하나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는 순차적 과제가 아니다.

AGI와 비교하는 또 다른 집착

이처럼 AGI가 인간을 압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새삼 '만(慢, māna)'이라는 개념이 떠오른다. 불교에서 '만'은 마음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여섯 가지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남과 견주며 마음을 높이 세우는 태도를 가리킨다(〈성유식론(成唯識論)〉 권6). 흥미로운 점은 불교 문헌에서 '만'은 우월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남과 같거나 못하다고 규정하는 비교의 양상까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윳따 니까야〉의 '소나경'에서 붓다는 "소나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기 마련인 색(色)에 따라 '나는 더 낫다'라고, 또는 '나는 같다'라고, 또는 '나는 못하다'라고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설한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일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을 높이든 낮추든, 비교의 결과에 기대어 '나는 이런 존재'라고 붙들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우월감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비교의 집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이 기계 앞에서 느끼는 위축 심리를 살피는 데 또 다른 거울이 돼 준다.

> **AGI, 사람처럼 폭넓은 지적 능력 갖춰**
> **인간 고용에 영향 끼치는 현실 과제로**
> **비교는 일의 도구 … 존중의 척도 아냐**
> **능력 서열이 존엄 서열 결정할 수 없어**
> **기술 활용하되, 보살핌 · 책임은 인간 몫**

이 가르침은 능력 차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학의 정확도나 판단의 오류율은 정확히 비교돼야 한다. 다만 그 비교 결과를 존재 전체의 등급으로 굳히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AI가 나보다 일을 잘한다'와 '그러므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이에는 건너뛰어서는 안 될 간격이 있다. 능력에서 동등하다는 비교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권리를 능력의 같음에 기대지 않을 뿐이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더 뛰어나야 더 존중받는다는 믿음에서는 한 뿌리다. AGI가 흔드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능력의 우열에 존재의 가치를 저당 잡혀 온 우리의 자기 이해다. 이 통찰은 실직한 이에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훈계가 아니다. '만'을 사회로 확장하면, 사람을 생산성의 등급으로만 대우하는 제도가 오히려 질문의 대상이 된다. 비교는 일을 나누는 데 쓰일 수 있어도, 돌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을 가르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불교적 응답은 '아직 AI가 못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머무를 수 없다. 창의성 다음은 공감, 공감 다음은 영성으로 성역을 옮겨 다니는 한, 존엄성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재심사받는 자격이 된다.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유리한 새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에서 앞서야만 존엄할 수 있다는 조건 자체를 철회하는 일이다.

"인간의 몫으로 남겨둘 영역"

필자는 여기서 필요한 관점을 '우월성 이후의 존엄'이라고 부르고 싶다. 남보다 잘하지 못해도, 기계보다 느려도 존엄의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패배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영리한 이가 덜 영리한 이를 지배해도 된다는 오래된 통념과 위계를 함께 거두자는 요청이다. 꼭대기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존엄을 설명하는 한, 그 아래에 놓인 생명은 언제든 수단으로 밀려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유리한 새 서열이 아니라, 능력의 서열이 존엄의 서열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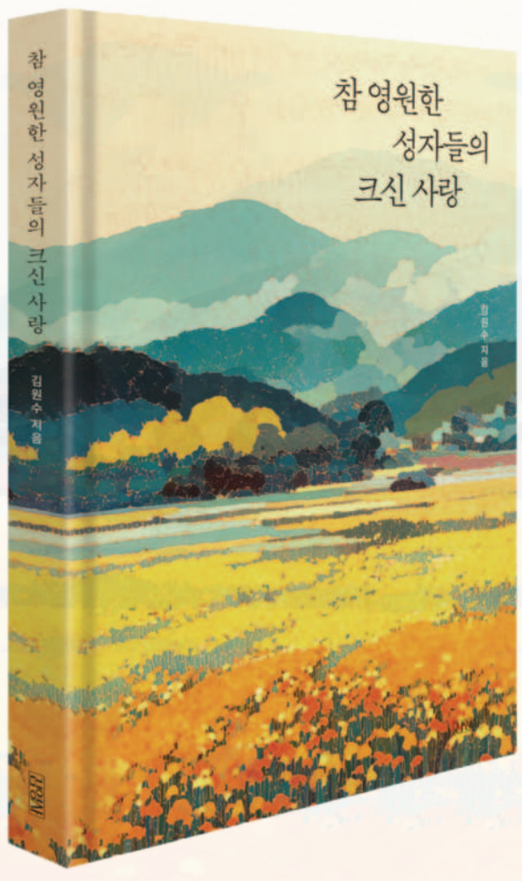
게이츠가 제안한 '인간의 몫으로 남겨둘 영역(Human Reserved)'도 이 관점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다. 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람에게 남겨 둘 영역을 제안하면서, 불치병 소식을 전하는 일과 아버지를 돌본 이들의 보살핌을 예로 들었다. 그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핵심 질문은 '기계가 못하므로 인간이 해야 하는가'에서 '기계가 하더라도 인간은 어떤 관계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가'로 옮겨 갈 수 있다. 돌봄 로봇이 환자의 몸을 일으키고 AI가 진단을 도울 수 있다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효율을 이유로 환자의 말을 들을 사람과 결정에 책임질 사람까지 밀어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남겨야 할 것은 마지막 남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가장 유능한 인간만을 위한 표어가 된다. 'AGI'라는 이름에 합의할 때까지 이 질문들을 미룰 이유는 없다. 이제 인류가 통과해야 할 문턱은 자신보다 영리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에만 있지 않다. 자신이 가장 영리하지 않아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문명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금강경의 핵심 진리를 소설로 녹여내다.



김영사 | 181쪽 | 16,800원

첫 장을 펼치면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로 만나는 금강경'



김원수 법사의 수많은 저술 끝에 탄생한 유일한 소설작품.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 김영사 '신간 소설'
출간 즉시 종교서적 상위권 진입.

3위 교보문고 26년 7월 종합
2위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종합
1위 교보문고 서울·경기권 11개 매장
7위 26년 7, 8월 '화제의 책' 200선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주요 유통사(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와 지역서점 438곳의 판매데이터 종합집계

실천가능한 금강경 강의와 해설서로 많은 불자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며 금강경을 전파한 대학교수 출신의 저자,
김원수 법사가 구도求道소설을 통해 새롭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저자 소개
김원수 |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학위 취득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역임 (정년퇴임)
· BBS불교방송, BTN불교TV 인기강사

불세출不世出의 도인, 백성욱 박사(한국 최초 독일 철학박사, 내무부 장관 및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를 모시고 4년간 출가 수도한 후, 전 재산을 희사하여 3개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사단법인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을 설립했다. 무료 급식으로 20년간 약 45만명의 어르신을 봉양해왔으며, 주말 출가와 일요 정기법회 등 금강경 실천수행을 수년째 지도하고 있다. 특히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 문의 031-963-2871~2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생을 지지하고 이상 세계로 이끌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⑱ 불국토(佛國土)의 인도자, 거북[龜]


양산 통도사 명부전 수궁도 벽화(조선 후기).


거북을 든 청도 적천사 명부전 동자상의 일부(조선 1676년).


거북을 탄 동자상(조선 후기, 통도사성보박물관).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통일신라 883년).

세상 등에 업고 지탱하는 굳건한 상징
고난의 중생 불국토로 인도하는 역할
연꽃 조합 장식으로 화재 예방 의미도
온화한 성품 희생·정신 가치 일깨워

사찰 초입부 혹은 깊숙한 곳에는 '부도원(浮屠院)'이 위치한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승탑(僧塔)'과 그 행적을 기록한 '탑비(塔碑)'가 빼곡하게 자리 잡은 부도원을 살펴보면 비석을 받치는 동물이 대부분 거북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찰 곳곳에서는 거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제작된 동자상 대부분은 거북 등 위에 타고 있거나 반려동물처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수미단(須彌壇)에는 물고기, 개구리 등과 함께 거북이 헤엄치며 연꽃 사이를 노닐고 있다. 또한 양산 통도사(通度寺), 상주 남장사(南長寺) 등 여러 사찰 벽화 중에는 토끼와 함께 용궁으로 향하는 별주부(鼈主簿)가 표현된 '수궁도(水宮圖)'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거북은 왜 항상 누군가를 태우거나 짊어지며 나아가는 이미지가 된 것일까?

세상을 받치는 버팀목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十長生)'의 일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긴 수명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문화 속의 거북은 장수보다는 하늘과 대지를 받치는 버팀목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신화 속 창조의 여신 '여와(女媧)'는 무너져 가는 하늘을 거북의 다리로 지탱했고, 〈열자(列子)〉에는 신선들이 사는 산이 뿌리가 없어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15마리 거북이 그 산을 지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기원전 3~4세기 편찬된 시문집인 〈초사(楚辭)〉에도 "산을 등에 지니고 다니는 큰 거북은 어떻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거북이 바다를 떠나 육지에 오르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여 거북이 산을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유 휘젓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인도 '유해교반(乳海攪拌)' 설화에는 유지의 신 '비슈누(Viṣṇu)'가 가라앉는 만다라산을 지탱하기 위해 거북 모습을 지닌 '아바타(Avatar)'인 '쿠르마(Kūrma)'로 변했고, 인도네시아 발리 원주민 신화에는 거대한 거북이 산과 강, 초목을 지탱하는 땅이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거북이 산과 대지를 지탱하고 짊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북의 신체적 특성에 있다. 거북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높고 강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200여 배에 달하는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거북의 높고 강한 등껍질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을 뜻하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했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거북은 세상을 짊어지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받치고 지탱하는 거북의 이미지는 비석 받침인 '귀부(龜趺)'로 발전된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 건 망자를 존경하고 기린다는 뜻으로 받침을 거북 모양으로 조각해 비석이 쓰러지지 않고 오랜 시간 튼튼하게 유지되기를 희망했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보여준다.

물과 땅을 넘나드는 인도자

거북은 수생생물이지만 육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북의 산란 습성이다. 어미 거북은 산란기 때 육지로 올라와 땅속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곧바로 바다와 강으로 돌아가 일생 대부분을 보내며 산란기 때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육지로 올라온다. 이처럼 땅과 물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는 생태적 습성을 '수륙양생(水陸兩生)'이라고 하며, 거북 외에 개구리, 두꺼비 같은 양서류도 해당한다. 그러나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물속에 알을 낳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수륙양생 동물은 바로 거북일 것이다.

이처럼 거북은 수많은 수생생물 가운데 물과 육지를 모두 다닐 수 있는 대표 주자다. 그래서 거북은 불교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 또는 이상향으로 데려가는 인도자 역할로 등장하곤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설화인 〈본생담(本生譚)〉 가운데 악어와 원숭이가 등장하는 '원숭이왕 설화'가 우리나라에 토끼와 별주부로 전해져 이상 세계인 용궁으로 향한다는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

〈별주부전〉 외에 인도자, 구출자의 모습은 또 다른 〈본생담〉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당(唐)나라 시기 활동한 의정(義淨) 스님이 번역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의 '거북왕 설화'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후 어느 때에 500명의 상인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갖가지 보물을 채집했다. 채집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갈어(磨竭魚)를 만나 배를 잘못 운항하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자, 상인들이 모두 슬피 울며 절규하였다. 그때 거북왕이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내 등에 타시오. 내가 이제부터 그대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의 '거북왕 설화'는 거북왕이 난파된 배에 갇힌 상인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야기다. 거북왕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태운 탓에 힘들어했지만, 자신의 심신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상인들을 육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줬다고 한다. 이외에도 거북을 타고 이상향의 세계로 간다는 기록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교에서 거북은 불국토의 인도자로 여겨지게 된다.

불국토의 상징

불교에서 물은 심신을 맑게 하는 감로(甘露)이자, 이상 세계 그 자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연꽃으로, 흙탕물에서 피어난 연꽃은 청정과 부처님, 불국토를 장엄하는 존재다. 바로 이 연꽃과 불교문화 속 수생생물의 선두인 거북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밀교 경전 중 하나인 〈감로군다리보살공양염송성취의궤(甘露軍荼利菩薩供養念誦成就儀軌)〉에는 황금 거북의 등으로부터 여덟 잎의 큰 연꽃이 솟아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수생동물의 대표인 거북이 부처님의 상징인 연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고려시대 장신구부터 법당 내부 장식, 조선시대 목가구 등 여러 문양에는 연꽃과 거북이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앞서 살펴본 불교문화 속 연꽃과 거북의 조합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법당 내부 장식의 거북의 경우 수생동물인 거북을 새겨 화재를 예방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마치며

불교문화 속 거북은 느리지만 강한 등껍질로 모두를 위해 힘쓴 버팀목 역할을 했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상 세계로 바래다주는 인도자를 자처했다. 이러한 거북의 온화한 성품과 희생정신은 우리들이 꼭 배워 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덕분에 빠르긴 하지만 삭막하기도 하다.

이에 한 번쯤은 느림보 거북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빠르게 달리다가 낭패를 본 토끼보다는 느리지만 차분한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듯이 우리 또한 거북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태껏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용덕 작가

제14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1일(토)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 시 상 식 : 2026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4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서로의 어려움 함께 극복하는 사회로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㊶ '오싹한 연애'(2026)



'오싹한 연애' 는 귀신을 보는 재벌 상속녀 천여리와 권력과 카르텔에 굴하지 않는 검사 마강욱의 좌충우돌 오컬트 로맨스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사진 캡처

어느덧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실제인가 AI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소복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 "사또"를 부르던 고전 속 귀신들은 현대에 맞는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들도 여고생, 공인중개사, 형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여름 밤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던 그 옛날의 '전설의 고향'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셈이니, 최첨단 기술문명 속에서도 전설이 계속되는 '전설적인 시대'라고 할까.

귀신들의 한은 대부분 현생에서 당연히 해결됐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생겨난다. 관례와 편의라는 이름에 가려진 불공정과 차별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은폐와 억울을 낳는 것이다. 21세기에도 이처럼 이승을 떠도는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드라마 '오싹한 연애'의 주인공은 재계 서열 5위 레이나 그룹 상속녀이자 국내 최고 럭셔리 호텔 대표 천여리(배우 박은빈)다. 겉보기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으니, 바로 12년 전 요트 사고를 겪은 이후 귀신을 보게 된 것. 귀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여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다. 세월에서 얻은 노하우로 여리는 저녁에 집으로 찾아오면 한을 풀어주기로 귀신들과 합의를 보고, 낮에는 호텔 대표 일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귀신 보는 일이 여리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데에 있다. 여리와 손이 맞닿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들에 시달려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 정도. 그래서 여리는 1년 365일 항상 긴 장갑을 끼고 다니며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다.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스톱! 거리 유지!" 행여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아도 섣불리 손을 내밀 수 없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여리를 오해한 사람들은 "뭘 보든 무시하고 누구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결벽증이 있다"고 하거나 "유럽 어디 왕세자빈 코스프레한다"고 뒷말들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아간다. 호텔 대표다운 드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잘 때엔 귀신들을 피해 작은 텐트를 안식처로 삼는다. 더구나 사촌동생 천하리(배우 조혜주)와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없는 여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밖에 없다.

이런 여리를 움츠리게 만든 것은 6년 전의 파혼이다. 여리는 약혼 전에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 있으면 평생 두려움과 공포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약혼자는 괜찮다며 당당하게 여리의 맨손을 잡았다. 그런데 정작 약혼식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만난 약혼자는 "손 한번 잘못 잡았다가 진짜 귀신이 붙을 줄 몰랐다"며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이 일로 여리는 스스로를 고독한 섬에 가둔 채, 외로움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한편 탁월한 피지컬과 비상한 두뇌에 정의로움과 따스한 인간성까지 갖춘 서울지검 에이스 검사 마강욱(배우 양세종)은 굳은 신념으로 권력과 카르텔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다. 사건을 쫓던 강욱은 깊은 밤, 야산에서 여리를 만난다.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에서 시신을 발견한다. 강욱이 여리를 범인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어찌어찌 오해를 풀고 헤어지는데, 첫 만남이야 우연이었다 치더라도 그날 이후 강욱은 계속해서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여리와 마주친다. 귀신들의 사연을 듣고 현장을 찾아간 여리 덕분에 사건을 해결한 강욱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갈수록 여리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재벌 상속녀와 열혈 검사의 오컬트 로맨스
귀신 보는 공통분모로 연애하며 상처 치유
현생 집착 귀신 · 원망 품은 삶 다를 바 없어
원한 · 억울함 내려놓고 더는 고통받지 않길



드라마 '오싹한 연애' 포스터. 사진 출처=tvN

얼마 후,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강욱은 다시 여리를 만난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테이블을 모두 예약하고 혼자 술을 마시던 여리는,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강욱의 셔츠를 찢으면서 그만 맨손으로 강욱을 만진다. 다음 날 여리가 사과의 의미로 값비싼 셔츠를 보내자, 셔츠를 돌려주려고 여리의 집을 찾아간 강욱. 그날부터 드디어 강욱도 귀신을 보기 시작한다. 덕분에 여리의 비밀을 알게 된 강욱은 예전의 약혼자와는 다르게, 여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 함께 귀신들의 한을 푸는 일에 나서게 된다.

드라마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호텔 재벌 상속녀와 열혈 검사가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오컬트 좌충우돌 공조 수사 로맨스'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오싹한 연애'가 원작인데, 여자 주인공이 술에 취해 남자 주인공의 셔츠를 찢는 장면이나 남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아이 귀신의 사연 정도만 원작 내용에서 가져왔을 뿐, 주인공들의 직업은 물론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드라마가 새롭게 만들어냈다. 특히 영화 '오싹한 연애'의 귀신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역할이었다면, 드라마 '오싹한 연애'의 귀신은 자신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과 같은 역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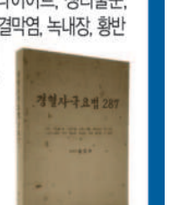
귀신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서 이승을 떠나게 하는 여리는 내로라하는 호텔의 대표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오밤중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숨기고 다닌다. 사건의 희생자는 물론 그들 가족의 가슴속 멍울까지 풀어주는 역할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는 영웅의 캐릭터지만, 남들이 알아선 안 되기에 한없이 외로운 여리. 그런 외로움은 사랑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큰소리치던 약혼자는 귀신을 보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머리로야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은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마강욱은 달랐다. 여리의 손이 닿아 귀신을 보게 됐을 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귀신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고, 여리의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위로한다. 귀신을 보기 때문에 여리는 세상과 담을 쌓았지만, 귀신을 보기 때문에 강욱은 여리의 담을 무너뜨렸다.

그런 점에서 '오싹한 연애'라는 제목은 이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손이 닿는 사람도 귀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여리. 연애의 기본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인데 여리는 연애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비단 귀신을 봐서만이 아니라, 혼자여서 오싹한 삶이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오싹함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해 줄 수 있으면 다른 차원이 된다. '귀신을 본다'는 공통분모를 계기로 여리와 강욱은 연애를 시작하고, 그들의 연애는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한편,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러 찾아오는 귀신들은 왜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생에 집착하는 걸까. '삶'에서 '죽음'으로 차원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생에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현생에 집착해서 귀신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이, 실은 살아있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귀신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모두 살아생전 겪었던 일이고, 살아생전 품었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억울함을 가득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귀신들의 한을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극락으로 왕생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는 현재의 삶이 힘겨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외롭고 힘들어도,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여리가 강욱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았듯이, 버거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할 불국토가 아닐지.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참 대법을 가지고 계신 석가세존이나 역대 조사들, 과거의 부처님들만 우러르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려서 아주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나는 것만 보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 무르익혀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익은 남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암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어느 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잘 익혀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고깃덩어리를 줄에다가 탁 묶어서 개의 눈을 가려 놓고 코에다가 대 주면서 장난들을 하는데, 코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은 가려졌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풀어야 그걸 먹을 수 있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거는 모르고 그걸 벗을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 음식만 먹으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걸 떼 먹으려고 온통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오면서도 웃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습구나. 너는 우습지 않으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하, 스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쭸죠. "큰스님, 큰스님께서 지금 저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 눈부터 틔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그것부터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 눈부터 뜨지 못한다면 그 눈을 가린 개와 같은 격이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렇느니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트여서 모든 것을 실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못 한다면,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상하고 때로는 아리송하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율이 있고 280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다면서 단 5계, 10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모든 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하는 말입니다. "맡겨 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름해서 대도(大道)니라." 이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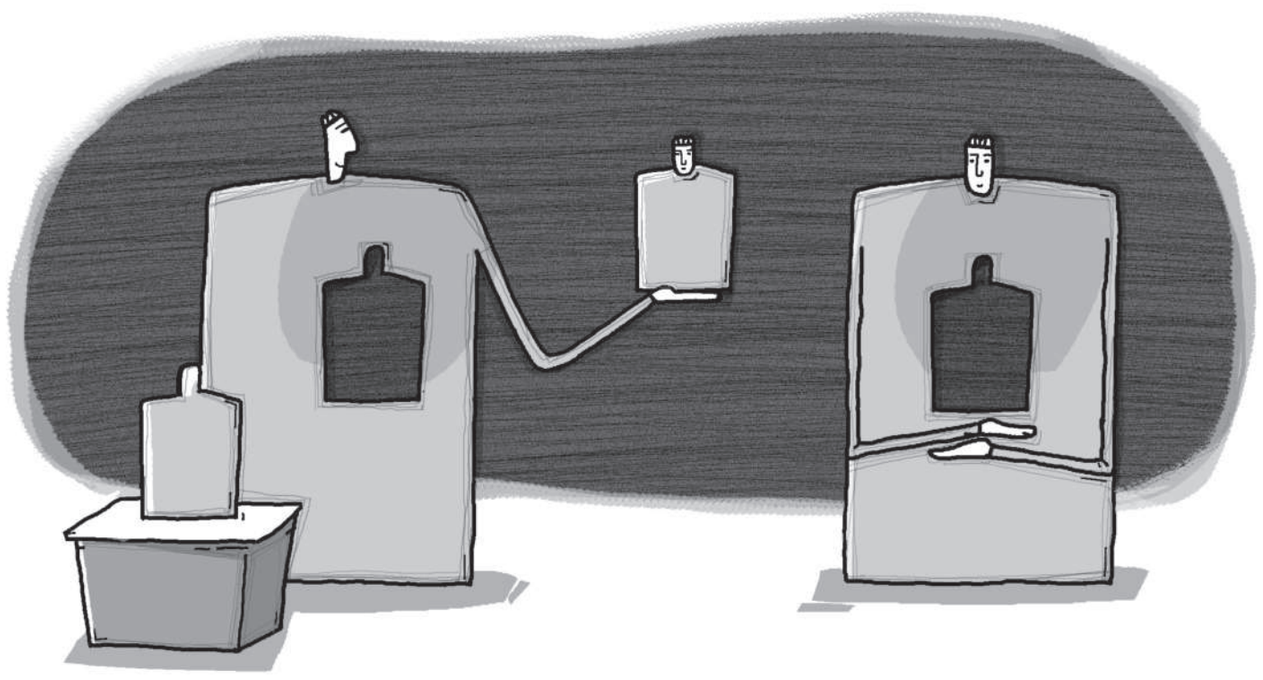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한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져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려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럭할 게 뭐 있습니까.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해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마음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믿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말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석존 뵙기를 원을 하니까 한번 들러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 좀 부축해 달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조각과 같고 꽃 이파리 하나와 같고 가을에 떨어지는 가랑잎 하나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그리고 인생은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허허, 평생 동안 형제 부모 자식에 대한 착을 모두 놓지 못하더니 결국 네 집에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에 대한 착도 놓아라. 몸도 일평생 네 집으로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성한 거만 먹였건만 네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란다고 해서 '재산을 버려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착을 떼라는 것은 '그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고 탁 맡겨 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러다가도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을 뒀어도 나중에는 아주 효자가 되고 충성하고 아주 바르게,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고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이런다면, 밉다 곱다 이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부드럽게 "나가서 며칠 밤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좋게 말해 준다면,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공에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식에게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럭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도 치시지 않고 좋게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 24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행선사 탄신 99주년 기념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



산사문화축제

2026. 10. 3.(토) 오후 7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법당 앞마당

초대가수


가수 이찬원


가수 진미령


가수 마이진


가수 추혁진


가수 정혜린

주최 · 주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후원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 불교방송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내가 죽기 위해서는 모든 착을 놓으라

☞ 23면에서 계속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밉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쳐요. 근본에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맡겨 놓고 하신다면 우리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을 이끌어 가고 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새 빚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100%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 마시고 으레 그러려니, '나도 자식 노릇을 할 때는 그랬었다.'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느냐.' 하고 '배신했다' 또 '예전 같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 주십시오.

어느 때에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 다섯을 낳아 놓고 부인이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철물점을 하게 되고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만 남편이 예쁘고 나이 어린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 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어려서 장가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하고 무슨 애정이 있겠느냐. 그러니 애정 한번 느끼면서 살아 보겠다는데, 그것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 줘라. 그리고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말해 주고 '여보 당신, 다니더라도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겠지요.' 하면서 좋은 말로 해 주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보약이라도 달여서 병에다 담아서 그 집으로 보내 줘라.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되 또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고만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억지로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쪼끄마한 장사나마 부지런히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마누라가 재산을 다 거덜이 나게 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그냥 거덜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마누라가 그냥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큰마누라네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우선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세요. 나는 그저 당신을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이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말이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 하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 이러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그 마누라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앞서의 여자, 새로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인이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층이나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 주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진짜로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깁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준 것만 생각을 하고 물건 가져온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돈 준 것만 아주 뇌리에 꼭 새겨 두니까 물건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만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돈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동안 만나 본 병든 사람들이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물 몇 살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려진 백 원짜리 그걸 세 개씩 갖다 놓고 그냥 가기도 하고 써 놓고 가기도 했거든요.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중략)

또 우리 선원에 다니면서 진정으로 믿었던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인데 남편은 미쳐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또 자기는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자궁암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자식들을 사 남매 낳아 놓고, 자기 집도 없었죠. 방 두 개를 사글세로 들어 살면서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가다가 시간이 없는데도 절에 와서 소금 한 공기를 먼저 떠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스님! 저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정신 없는 애들 아버지도 낫게 해 주세요. 당장 애들도 먹여야 하고 남편도 먹여야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엉치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은 백지장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갈 때 나는요, 마음이 찡하구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궁암은 저절로 낫고 남편도 저절로 낫고, 10년 동안이나 못했던 철공 일을 하게 됐고, 그 보살은 소금 팔던 걸 놓고 김밥을 싸서 어느 회사에 넣게 됐습니다. 사람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는데 인제는 부자가 돼서 큰 집 사서 살고 아들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대학 졸업한 놈도 있고 대학원 나가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뼈저리고 눈물 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불성,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바로 현재 의식이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믿고…. 다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이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고 거기에 다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십시오. 앞으로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해! 당신밖에는 이렇게 즐겁게 해 줄 수 없어.' 하고선 놓고, 안 될 때에도 질병 문제라면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가정 문제라면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요. 광명과 같고 전력과 같고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과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합이 되니까 바로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도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 흙에서는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이나 전체가 종합돼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 놓은 것도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 얘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 마음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 이지 자기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9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 마음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믿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말입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⑰ 잊힐 가락, 남을 것들

연주 넘어 삶의 태도를 다듬다

오랜 인연이 되어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는 시골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해마다 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1등을 하면 도 대회에 출전한다. 감사하게도 내가 수업을 맡은 뒤로 매년 도 대회까지 함께 하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가야금 수업이 없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대여해 준다. 그래서 방학 전이면 "개학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게, 집에서도 가끔씩 꼭 뜯어봐"라고 당부한다. 그래도 몇 주를 쉬고 만나면 손의 감각이 달라지고 함께 맞춰온 흐름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다. 가야금을 배운 지 3~4년 된 아이들이 개학하자마자 내가 재촉하기도 전에 악기를 꺼내 연습을 시작했다. 맞지 않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다시 해 보고, 어디부터 맞출지도 서로 의논했다. 예전에는 수업이 시작돼야 움직이던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이 학교 아이들은 수업할 때도 대회에 나갈 때도 모두 학교 가야금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졸업한 후에도 가야금을 계속 배운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학교를 졸업하면 가야금을 직접 만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아이에게는 이 학교에서 보낸 몇 년이 가야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은 어디에 남을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곡을 얼마나 잘 치는가와 함께, 아이들이 연주하는 동안 어떤 방식을 익혀가는지도 중요하게 보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악기를 꺼내는 일, 합이 맞지 않으면 아이들끼리 다시 맞춰보는 일, 서로의 연주에 의견을 주고받고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대회 역시 순위를 확인하는 날만은 아니다. 평소 학교 안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음악과 악기, 또래 연주자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종종 "오늘은 콧바람도 쐬고 오는 거야"라고 말한다. 가야금을 배운 덕분에 조금 먼 곳까지 가보고, 자신들이 모르던 음악을 만나는 것까지도 이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어긋나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도 대회 날, 대회장 로비와 바깥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연습 소리가 가득했다. 우리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가야금곡이 들리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고, 처음 보는 아쟁에서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했다. 많은 학생이 여러 국악기를 들고 국악관현악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낯설어했다.

올해 도 대회 무대에 오른 다섯 아이들이 이런 규모 앞에서 괜히 주눅 들지는 않을까 걱정돼 무대에 들어가기 전 노리개를 하나씩 달아

자발적 시도와 의견 교류 등 태도 변화
경쟁 넘어 무대 위 안정된 연주 이끌어
훈습처럼 반복 경험, 새 도전도 이끌길

주며 "기죽지 마.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와"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연주가 시작되자 옆에서 굳이 박을 끌어줄 필요가 없을 만큼 아이들의 장단은 안정돼 있었다. 평소 간혹 어긋나던 다섯 명의 소리가 그날은 한 덩어리로 맞았다. 다섯 대의 가야금이 한 대처럼 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평소 수업에서는 하루하루의 변화로만 보이던 몇 년의 시간이 그날은 한꺼번에 소리로 모인 듯했다.

무대가 끝난 뒤 한 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해마다 딸의 대회를 지켜봤지만, 올해는 아이가 정말 많이 자란 것이 느껴졌고 끝까지 악착같이 연주하는 모습에 마음이 벅찼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울컥했다. 아이들이 그날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합주할 때마다 맞지 않는 부분은 아이들끼리 다시 맞춰보고, 서로의 연주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쌓여왔다. 개학 뒤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악기를 꺼냈다.

마음에 익혀온 것이 발휘돼

유식에서는 반복된 행위와 경험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이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작용을 '훈습(熏習)'이라 한다. 그날의 연주가 이 말을 이론이 아니라 눈앞의 장면으로 바꿔놓았다. 반복해 온 것이 더는 연습의 횟수로만 남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과 연주 방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훈습의 관점에서 명상을 바라보면, 수행은 한 번의 특별한 경험보다 무엇을 되풀이해 마음에 익혀왔는가와 더 가까워진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과 반응을 거듭 선택하느냐에 따라 마음에는 그 방향의 습성이 남는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순간적인 평온함보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다시 선택해 왔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익힌 것이 어느 순간 생각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올 때, 수행은 비로소 생활 속에서 힘을 갖는다. 그날 무대에서는 몇 해의 연습이 가락뿐 아니라 아이들의 태도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몇 년 뒤 아이들은 연주했던 가락을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시작해 본 경험, 처음 듣는 소리를 피하기보다 궁금해했던 태도, 낯선 자리에서도 자기 몫을 해낸 경험은 다른 순간에 다시 나올 수 있다. 더 어려운 주법을 하나 익히고 한 곡을 더 완성도 있게 연주하는 일도 분명 가야금 교육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것 앞에서도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곳에서 가야금을 가르친 몇 년은 충분히 제 몫을 한 것이 아닐까.

가야금 명상곡 '마지막 음이 지난 뒤'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⑳ 척추관 협착증이 보내는 신호

짧은 거리도 자주 쉬어야 한다면

"선생님, 예전에는 1시간 이상도 잘 걸었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꼭 한번 앉아 쉬어야 해요."

진료실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었을 때만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 앞 마트에 가는 길에도 몇 번씩 쉬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고 저리며, 잠시 앉아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걸을 때 다리가 아플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하고,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점차 좁아지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비교적 괜찮다가 서 있거나 걸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를 뒤로 펴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의자에 앉거나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걷기는 힘든데 자전거를 타거나 쇼핑카트를 밀면서 걷는 것은 비교적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정 거리를 걷고 나면 다리 통증이나 저림 때문에 멈추어 쉬어야 하는 증상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허리 통증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허리보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통증이나 저림이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왜 허리 병인가요?"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계시는 이유입니다.

척추관 안에서 눌리는 것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MRI 사진에서 척추관이 좁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결정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좁아지는 질환
허리 숙이면 통증 줄고 다리 저림 증상도
보행 장애·대소변 기능 이상 땐 적극 치료

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협착이 심해 보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분이 있는 반면, 영상으로는 변화가 아주 심하지 않아도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증상을 느끼고 있으며, 그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협착증이라고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 신경 주사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보행장애가 계속된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눈에 띄게 짧아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소변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심한 근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치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 역시 단순히 MRI가 좁아 보인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압박의 정도와 환자의 증상, 보행 능력,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몸의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분,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 쉬어야 한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다 아픈 거지"라고 하며 참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출이 줄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리 근육과 체력까지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목표는 MRI 사진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다시 편안하게 걷고, 필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의 기능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잠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필요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일상을 오래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지욱
거인병원 척추센터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⑰

수레꾼 고등학교를 짓지 못한 아쉬움



수레꾼이 세운 뽀디봉 중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 마을에 세운 뽀디봉 초등학교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을에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아이들이 글을 깨우쳐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뽀디봉은 물도, 전기도, 제대로 살아갈 집도 변변치 않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세웠더니 가슴 아픈 일뿐이었습니다. 교실만 있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고, 햇볕을 피할 나무와 마실 물도 필요했습니다. 수레꾼은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 많은 나무가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더 배울 곳이 없어 태국으로 넘어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레꾼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여러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이 프놈펜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뽀디봉 마을을 찾아 농촌봉사도 이어왔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와 비교하면 마을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뽀디봉 마을 380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0가구는 여전히 뿌연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몸을 씻고,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환경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힘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NGO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때로는 처음 세운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뽀디봉 초등학교에는 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수레꾼이 세운 뽀디봉 중학교에는 25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70명 가까이 되지만, 그 가운데 절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난입니다.

뽀디봉 마을에서 고등학교에 가려면 자동차로 약 40분, 오토바이로 약 50분 떨어진 썸라옹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 아이들에게 6개월이나 되는 우기 동안 매일 그 길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레꾼에게 고등학교까지 세울 힘은 없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썸라옹 시내에 작은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뽀디봉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어쩌면 작은 기숙사 하나가 아이들의 끊어진 배움의 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뽀디봉에서 수레꾼이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⑨ 첨단의 시대, 청년 불자들과 함께

학생 눈높이서 함께 걷고 고민할 터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학교는 올가을 영캠프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영캠프보다는 더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불교동아리 'BUDDHAI' 법사를 맡은 지 2년이 훌쩍 지나, 그간 두 차례 영캠프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세 번째 영캠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UDDHAI'란 불교동아리 이름은 'AI융합대학'이라는 초기 대학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Buddha)과 AI의 융합이라는 현대사회의 화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첨단융합대학은 설립된 지 약 6년 정도밖에 안 된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아리 초기만 해도 체계가 잡히지 않아 모든 것이 어수선했고, 법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당시 학생들 역시 학제 개편과 구조조정이란 변화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 취업이라는 현실적 무게 속에서 삶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도 BUDDHAI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존 종교의 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인 덕분에 창립 초반 동아리 가입률이 교내 타 단과대학을 항상 앞섰습니다.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발담글 수 있는 불교가 학생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법회 진행보다 깊이 있는 체험

청년들 현실 이해 속 맞춤형 정기 활동

마음 안식처 되도록 전법 다져나가려 해

이에 맞춰 전법 방식도 바꿨습니다. 전체 인원을 동원하는 대규모 법회 모임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딱딱하지 않으나 깊이 있는 체험'에 집중했습니다. 학기 중 격주로 진행되는 동아리 오프라인 법회는 소박하게 이어나가는 한편, 동아리 내 차담 소모임인 '티톡'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차를 나누며 마음을 터놓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 학기 소수 정예 인원이 중심이 되어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템플스테이', 국내 여행이라는 가벼운 설렘을 담아 전국 방방곡곡의 천년고찰을 거니는 '사찰 탐방', 나아가 넓은 세상의 불교를 직접 견문하는 '해외불교 탐방'을 정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소수라도 매 학기 꾸준히 이어진 이 여정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끈끈하게 묶고, 동아리의 단단한 중심축이 됐습니다. 어수선했던 창립 초기의 불안함은 어느새 서로를 든든히 지지하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BUDDHAI 청년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가벼운 여행 삼아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던 학생들도,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는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은 시대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길 주저하던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통 사찰로, 템플스테이로, 나아가 세계로 걸어나가는 과정을 보며 법사로서 큰 보람과 희망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첨단융합대학 불교동아리 BUDDHAI가 첨단 학문을 탐구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서 함께 걷고 고민하며 전법의 길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정천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㉝ '자연산' 가을의 길목에서

마침내 가을. 달력에 박힌 '입추'라는 글자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민망한 시간을 한참 보낸 다음이다.

올여름은 모질게 더웠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벌써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어쨌든 견뎌냈다. 덕분에 내성이 생기려나 싶지만, 기후 변화의 속도가 현격히 앞선다. 기대 난망이다. 사실 우리의 인내심은 더 성능 좋은 에어컨 '돌려막기'로 더 허약해졌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반소매 옷을 입고 집안 가득 여름을 데려올 것이다. 계절 감수성은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이 아니라 온도 센서 같은 통제 장치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미래를 탕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은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에 신기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가상'이다. 여름에 겨울을, 겨울에 여름을 돈으로 사들이는 세상. 앞으로는 계절마저도 '자연산'을 따지게 생겼다.

드디어 가을. 이제 곧 우리는, 하늘이 햇볕으로 익힌 국화 향기 속에서 '진짜' 가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느낄 감정의 순도는 얼마나 '자연산'일까. 열병 걸린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은 '동병상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름을 여름답게, 겨울을 겨울답게 받아들이는 정직한 계절 감수성 말이다.

화엄사 보제루 국화꽃 문살을 보면서 기도한다. 우리 모두 이 가을만큼은 '무방비'로 만끽할 수 있기를.

손영자 작가



화엄사 보제루.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10일간)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2차 27년1월14일 출발-19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5월24일 출발~6월0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16일간)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거품 너머, 바다를 보다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아침에 세수를 하다 보면 비누 거품이 풍성할수록 더 깨끗하게 씻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거품의 양과 세정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깨끗해지는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거품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효과보다 '효과처럼 보이는 모습'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품이 참 많다. 식당에서는 음식 맛보다 사진부터 찍고, 책은 다 읽지 못해도 책장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하다.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원본을 보고, 남의 삶은 잘 편집된 하이라이트만 본다. 비교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재산과 직함, 학벌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라고 믿을 때 생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거품이 생긴다. 기대가 커지면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먼저 달려간다. 처음에는 '왜 오르지?' 하다가 계속 오르면 '조금만 사볼까?' 하고, 더 오르면 '그때 더 살걸' 후회한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다. 사실 거품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다. 거품은 처음부터 거품이었다. 우리가 그걸 바위라고 믿었던 것뿐이다.

사람도 그렇다. 처음 좋아할 때는 상대가 완벽해 보인다. 말이 적으면 진중해 보이고, 말이 많으면 재미있어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상대가 변했다기보다 내가 씌워 놓았던 기대의 거품이 걷힌 경우도 많다.

우리 삶에 실제보다 화려한 거품 많아
밧줄을 뱀으로 착각한 것과 같은 전도
거품 같은 삶도 품어내는 마음 기르길

불교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전도(顚倒)'라 한다. 어두운 곳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등불이다. 밝게 보면 처음부터 뱀은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

욕망도 그렇다. '저 차만 사면, 저 집만 가지면, 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에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욕망은 목적지라기보다 신기루에 가깝다.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즐거움도 누리고 성공도 이루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말자는 거다. 불교의 무상은 "다 사라지니 허무하다"는 가르침이 아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더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가르침이다.

비눗방울을 보는 아이는 곧 터질 걸 알면서도 웃는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즐기기 때문이다. 어른은 소유하려 해서 괴롭고, 아이는 즐겨서 행복하다. 수행도 거품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거품인 줄 알면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 바로 수행이다.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칭찬이 생겨도 거품 하나, 비난이 생겨도 거품 하나, 돈이 생겨도 거품 하나, 잃어도 거품 하나…. 거품은 계속 생겼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다. 혹시 지금 뭔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주먹을 꽉 쥐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의 손도 잡고, 새로운 인연도 받아들일 수 있다.

거품은 잡는 순간 터진다. 그러나 바다는 잡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다. 우리도 거품 같은 삶에 매달리기보다,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한다.

네팔 돌발 홍수와 전기 요금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네팔의 돌발 홍수는 마치 AI가 만든 영상인 듯 느껴졌다. 어마어마한 격류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물이며, 어마어마한 바윗돌이 물살에 둥둥 떠가는 장면 모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엄청났던 첫 번째 원인이야 빙하 붕괴에 따른 거대한 돌발 홍수다. 하지만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트레킹 명소로 유명한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이고, 인근 카일라스산은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로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장소였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다.

홍수라고 하면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데 보도된 사진은 더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빙하와 암반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가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빙하 붕괴의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결국 기온 상승과 만나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재난은 자연재해를 가장한 인재라고 보는 게 맞다. 이번에 붕괴된 빙하는 힌두쿠시 히말라야 권역에 형성된 빙하로 여기서 발원한 주요 하천이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메콩, 양쯔, 황허 등 10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 유역에 인접한 나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부터 인도, 네팔, 부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이르는 8개 나라가 있고 20억 명쯤이 그곳에 산다. 이번처럼 거대 빙하가 무너지고 빠르게 녹으면서 사라질 물로 인해 향후 벌어질 물 부족은 결국 심각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빙하 붕괴 따른 네팔 홍수와 집중 피해
기온 상승 원인 인재, 탄소 배출 줄여야
화력발전 비중 높은 전기료 정상화 시급

오래전부터 히말라야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었다. 경고는 이미 있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단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할 건 뭘까? 기온 상승을 늦추는 것, 더 정확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다.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올여름도 개문 냉방 영업을 하는 곳이 꽤 많았다. 전기요금이 올라도 지금처럼 전력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굳이 필요 없는 것들까지 전력을 소비하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발전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은 고작 10% 남짓이다. 나머지 90%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온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1kWh당 0.127달러로, 조사 대상 144개국 가운데 81위였다. 이탈리아(0.414달러), 독일(0.406달러), 일본(0.227달러), 미국(0.188달러)보다 쌌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전기료가 저렴했다. 전기 요금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전기 요금 정상화는 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는 한계 자원이다. 한계 자원이란 더 이상 무한정 늘리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된 자원을 뜻한다. 전기가 필요하다고 당장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무한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빙하도 한계 자원이다. 한 번 사라진 빙하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社 說

파병, 생명을 거래할 수는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반발 등 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분명히 세워야 할 원칙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통상적 이해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희생해 얻어야 할 국익은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호르무즈 파병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월 9일 종교·노동·인권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정부에 거부 입장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어떤 곳에서도 국익이라는 이름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도 9월 15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 파병 논의에 불교계 반대 입장
평화 해법 모색할 외교적 노력 절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책임과 군사적 개입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병한다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군이 무력 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전투 전력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임무의 명칭이 장병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않는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이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과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 역시 불교가 실천해야 할 자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설했다. 전쟁은 죽음과 상처를 낳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며, 난민과 빈곤을 양산한다. 경제와 사회, 환경에까지 그 상처가 이어진다. 또한 한 번 시작된 군사적 충돌은 당사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종교계와 노동계, 인권단체 등 각계가 파병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이 사안이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국민 생명과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풀어가는 길을 가르친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한 것도 더 많은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충돌을 완화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하다. 전쟁의 위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 힘을 보태는 나라가 돼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이것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장 단순하고도 엄중한 가르침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한다. 생명을 거래해서 얻는 국익은 국익일 수 없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이고, 장병의 안전이며, 평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라!!!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린 특정 종교 특혜 입법을 규탄하며,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적 지원 철회를 촉구한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일반적인 세계문화교류 행사가 아닌, 행사 명칭에 종교가 생략된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가톨릭 신앙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직사회의 엄격한 종교적 중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교리·선교 행사인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정교분리 원칙을 참담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경쟁적으로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제문화행사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 통과시키더니, 정부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마저 당 차원의 지원단을 출범시키는 초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편향적 특혜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폭주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특혜성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의 입법 폭거

서울시의회는 종교 간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와 교육청 부담만 무려 972억 원에 달하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기습 가결**했습니다.

– 기초 자치구의 동조와 공적 자원 동원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대교구와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당고개·새남터 등 천주교 순례길 정비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로구의회는 구체적 역할과 예산조차 미정인 상태에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들에는 예산 범위 내 공간 제공,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위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서막

이제 이 논란은 서울을 넘어 교구대회가 개최되는 충남 등 전국 지방정부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다종교 사회의 화합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 국가가 특정 종교의 ‘선교 목적 행사’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황이 주재하고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교리 학습과 신앙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특정 종교의 선교 집회**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법과 기존 국제행사 지원 제도를 외면하고, 오직 이 대회만을 겨냥한 특별법과 조례를 신설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고 공교육 자원(학교 시설 숙소 동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 의무(정교분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공공재정이 특정 종교의 인프라 구축과 포교 활동에 사유화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종교에 끄달리는 악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 공직사회에 종교적 편향을 강요하고 종교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지원단 출범과 자치구의 강제적인 공적 인력 동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특정 종교 행사의 수발을 들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의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 행위입니다.** 각종 선거 계산에 매몰되어 여야 없이 종교 편향에 동조하는 국회와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의 틀을 깨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망각한 채 특정 종교 우대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및 각 자치단체의 편향적 특혜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폐기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세금 몰아주기와 공적 자원 유용을 강행한다면, 헌법 수호와 종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70(2026)년 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회 위원장 翠山 普化